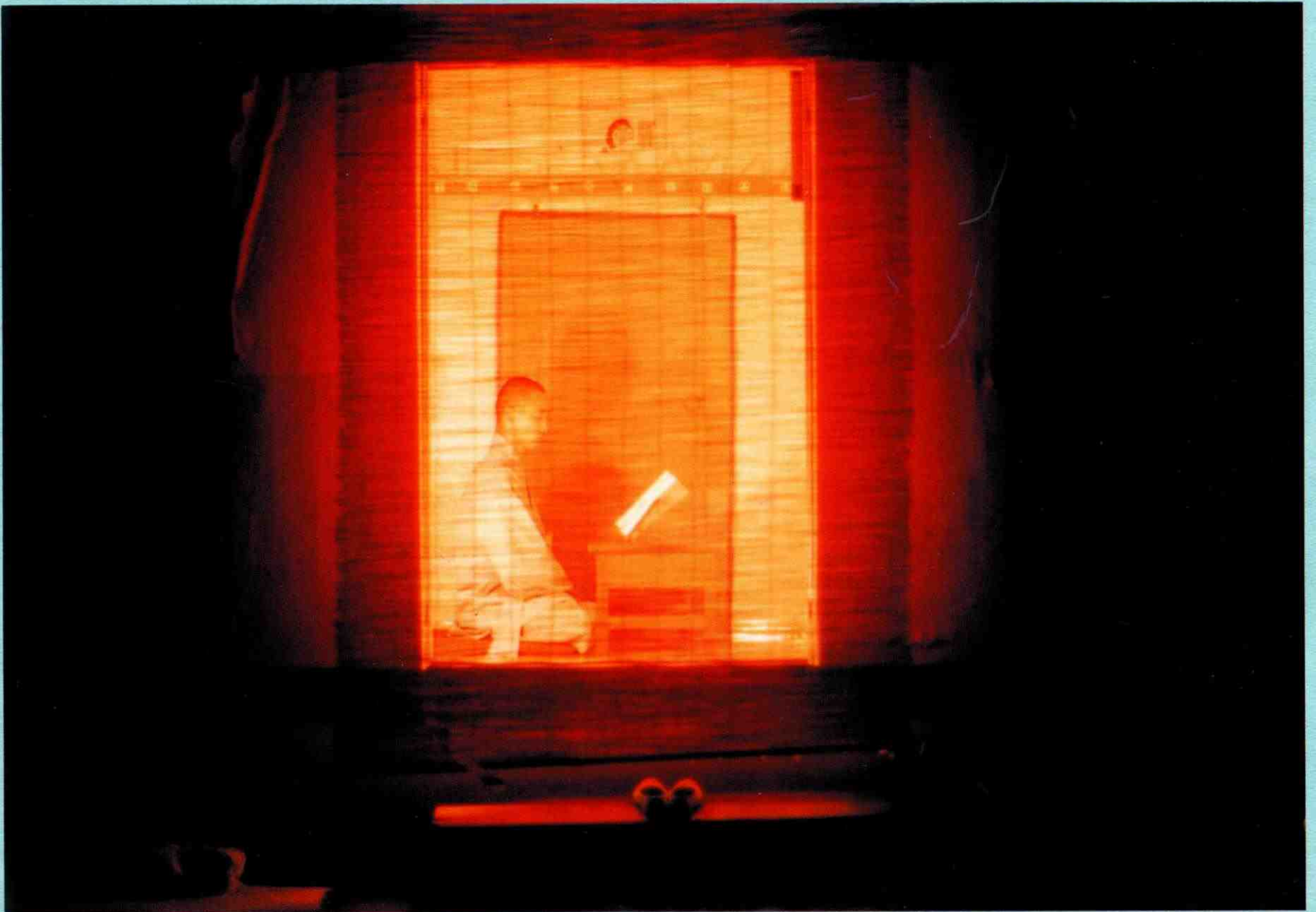


海清堂

2540년
여름호
제10호



松廣寺講院
송광사강원

진정한 사리

올 여름 조계의 洛水는 장마 비의 덕분으로 맑고도 시원한 모습으로 우렁찬 소리와 함께 거침없이 흘러내리고, 것처럼 불어난 큰방 대중스님네의 간경 소리도 여기에 묻힐세라 낭랑하고도 힘찬 범음으로 도량을 가득 메운다. 이 모두가 적멸에 드신 일각 승찬 방장 큰스님의 크나크신 원력과 덕화에 힘입은 결과이리라.

방장 큰스님께서 입적하신 날 아침, 파계사주지시며 율주이신 성우스님께서 그 곳 영산율원에서 동국대 채인환스님을 모시고 계율 특강이 있다고 특별히 불러 주셔서 먼길을 떠나 있었다.

강사스님의 강의와 이전의 강원생활 등에 대해 들으면서 참으로 신심이 났었는데, 이튿날 새벽 도반스님이 어젯밤 방장스님께서 입적하셔서 율주스님과 강주스님이 먼저 떠나시며, 우리는 강의를 다 듣고 오라고 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믿어지지 않음과 막막함이란! 어른스님들의 말씀과 그 곳 스님들의 배푸심을 저버리는 것 같아 죄스런 맘도 많았지만, 일단 서둘러 귀사하는 것이 옳을 듯 싶어 걸망을 꾸려 돌아와, 강주스님께 인사드리러 가니 마침 함께 계셨던 율주스님이 “뭐하러 왔나! 지금 시신을 옆에 두고 공부를 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인데 너희들이 와서 뭐 할 일이 있다고 벌써 왔나! 강의를 다 듣고 오라고 그리 일어난만!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한단 말이나” 하시며 책망을 하셨다. 순간 전 방장이셨던 구산 큰스님이 도반과 결제 중에 도반스님이 입적하자, 눈이 밝아야 천도도 시킬 수 있다며 더욱 가행정진 하시어 사십구재 전에 일대사 해결을 보시었다는 말씀이 떠올랐다. 그러한 가풍이 이어짐인가?

방장 스님을 3년여 시봉하였고 아낌을 받았던 도반스님이 다비식이 끝나도록 보이지 안길래 궁금했더니 봉암사 선원에서 용맹정진 중이라 소식은 갔지만 정진을 풀지 않고 계시단다.

어찌 보면 매정하고 도리가 없는 듯하나, 원래 이 집안 공부는 북풍한설보다 차가운 바람이 일도록 매서워야 하는 것이고, 진짜 사리는 재 속을 뒤져서 나오는 것이 아닌, 그 분의 법과, 법을 이은 눈 밝은 제자인 다음에야 이 또한 참된 효상좌의 모습이리라.

그리고 그렇게 수행하는 이들이 있기에, 비록 큰스님은 가셨어도 조계의 물소리는 지침 없이 더욱 힘차게 흘러내릴 것이다.

차 례



조계의 물소리	진정한 사리	
추모특집	2/조계총림 방장스님 입적	편집실
해청탐방	8/불전국역연구원장, 혜남스님	편집실
지대방 이야기	14/송광사의 복 많은 친구들	연각
	16/출가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	일대
	22/들깨 모종 울력	연봉
	24/비전 단상	정묵
	27/불로덕우	덕우
일기	18/새벽	일상
해청시원	20/불꽃 놀이	보적
	37/새벽예불 가면서	선문
	45/송광사의 여름	진종
기획연재 8	28/강원은 수행도량이고 학인은 구도하는 수행자다	지운
포토에세이	38/어린모종의 발원	한운
불교학개론	40/보여주시기 위한 붓다의 일생	진욱
소감문	50/입방 소감	보일
	52/컴퓨터와 불교	범우
원전번역	54/진각국사 혜심	응진
학인논문	57/사미십계로 본 여러경전의 율사상	종지
화보	46/화보와 소식	
경전 한귀절	19/무집착	
	63/편집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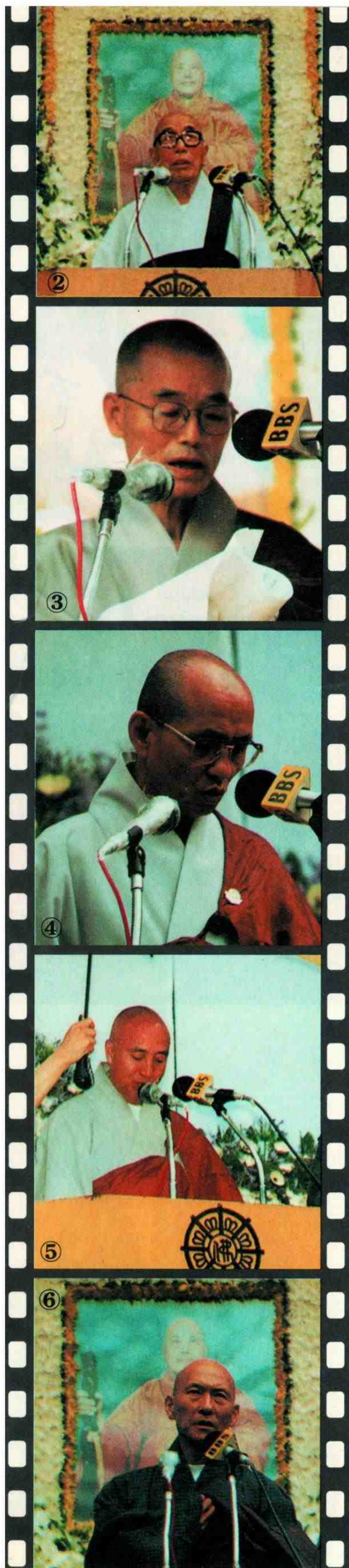
生死一大事 大覺의 길 引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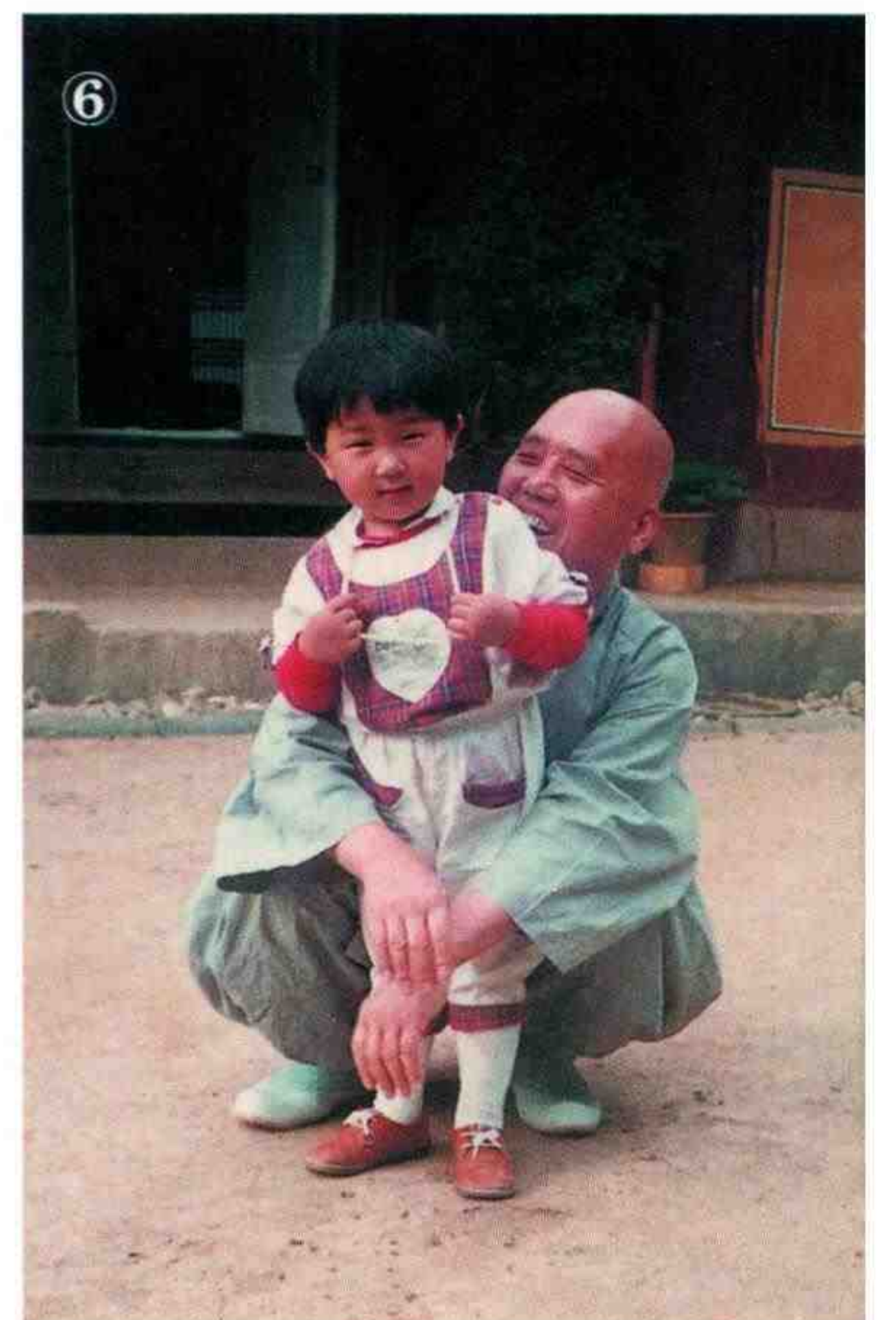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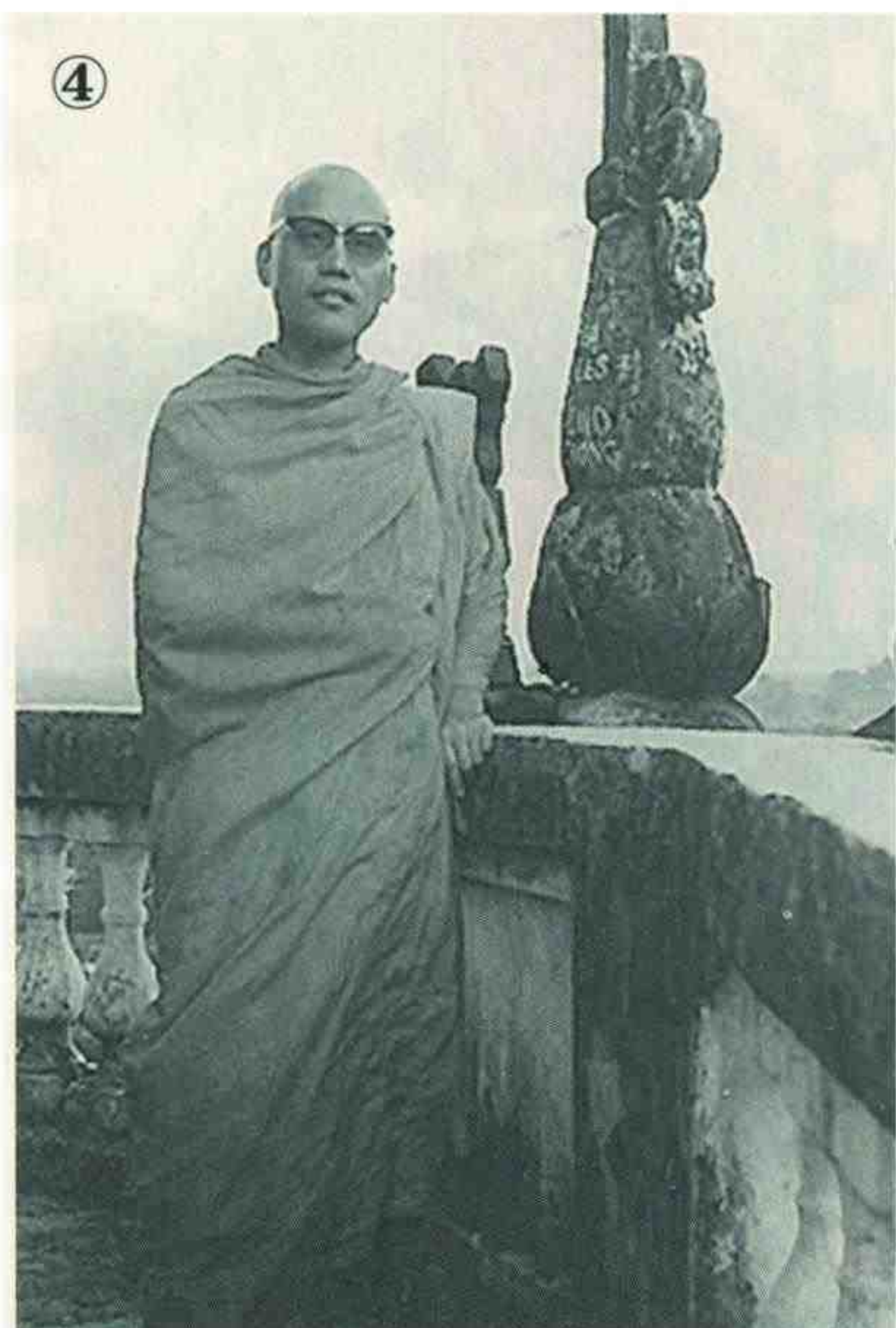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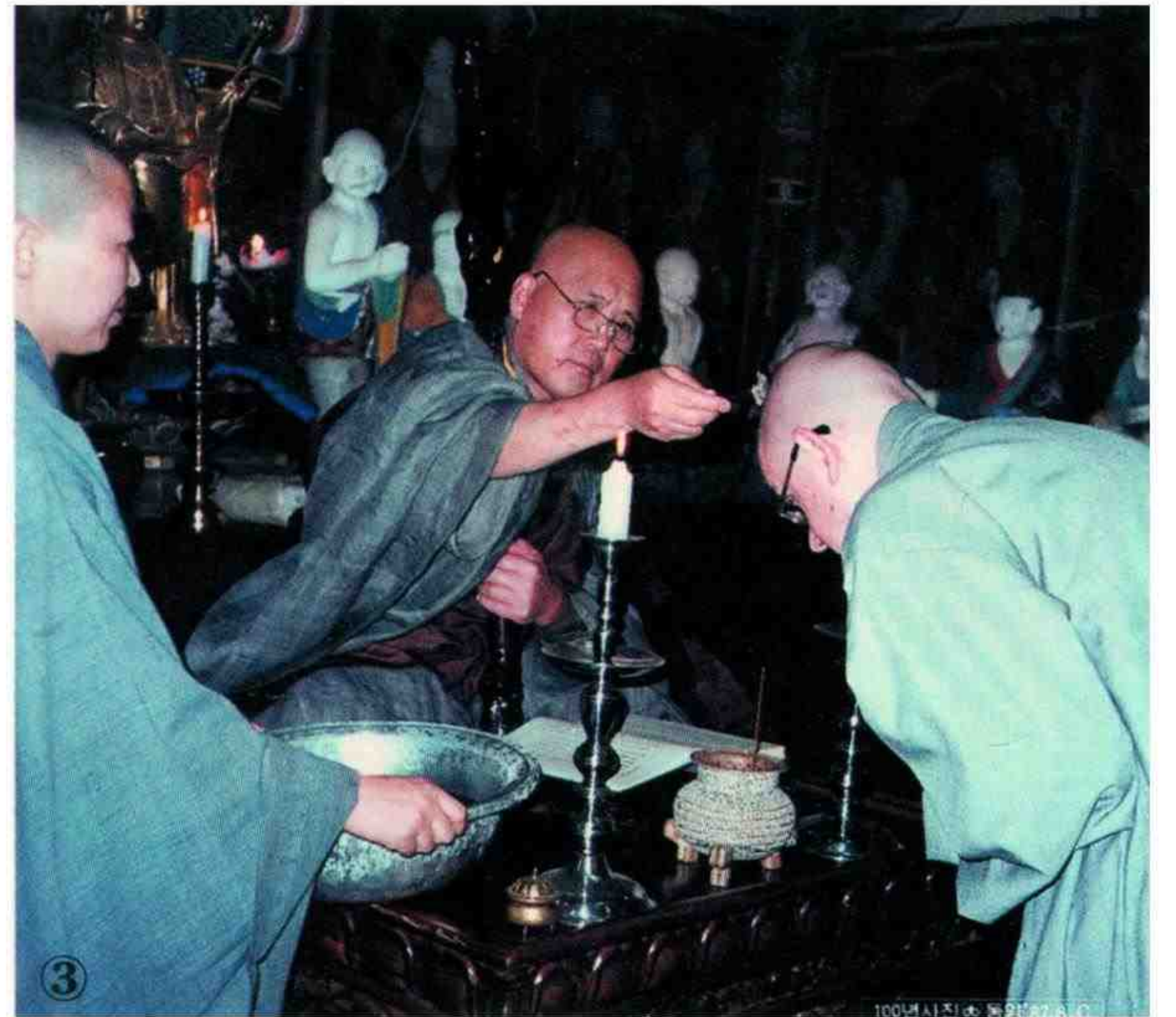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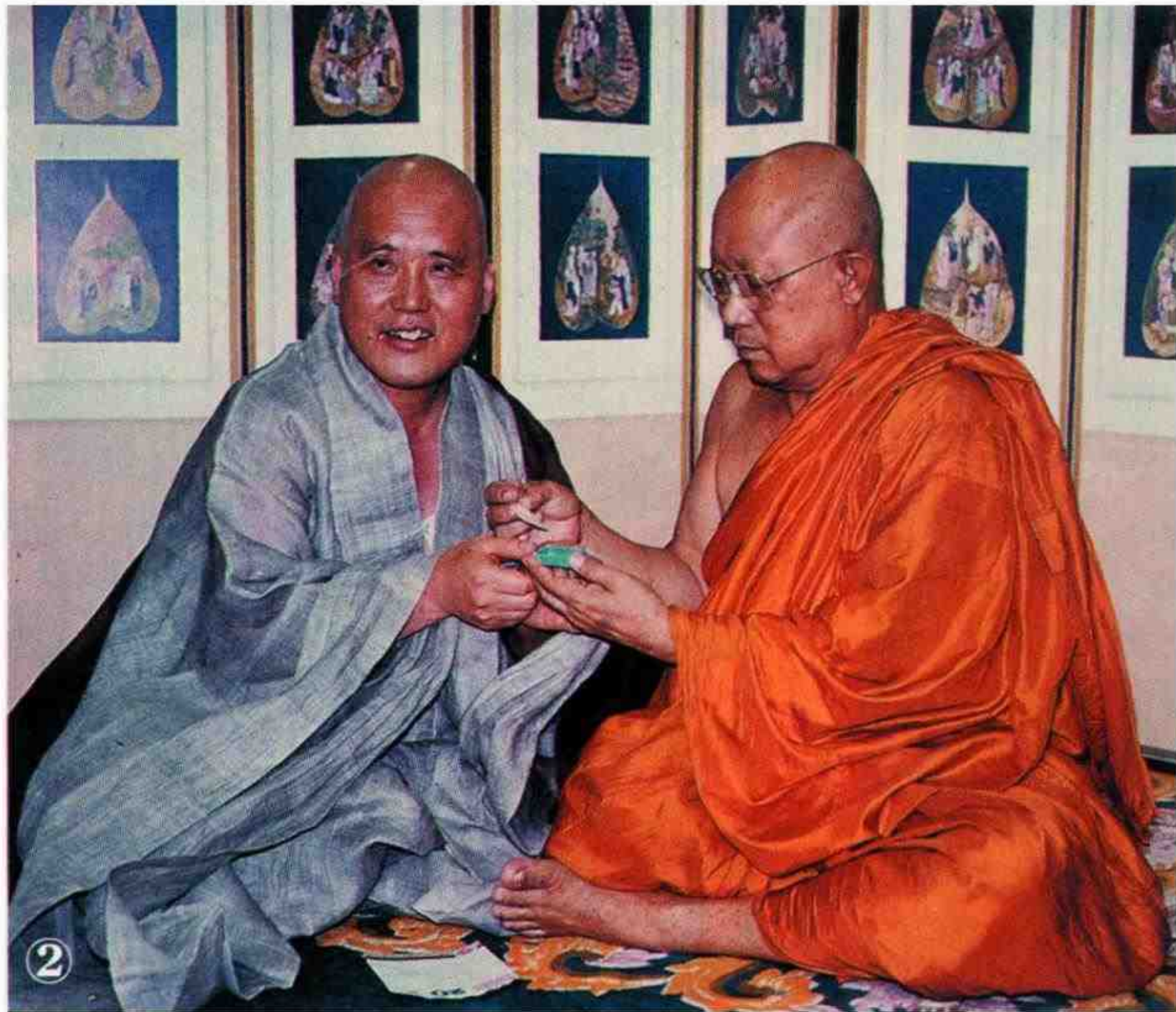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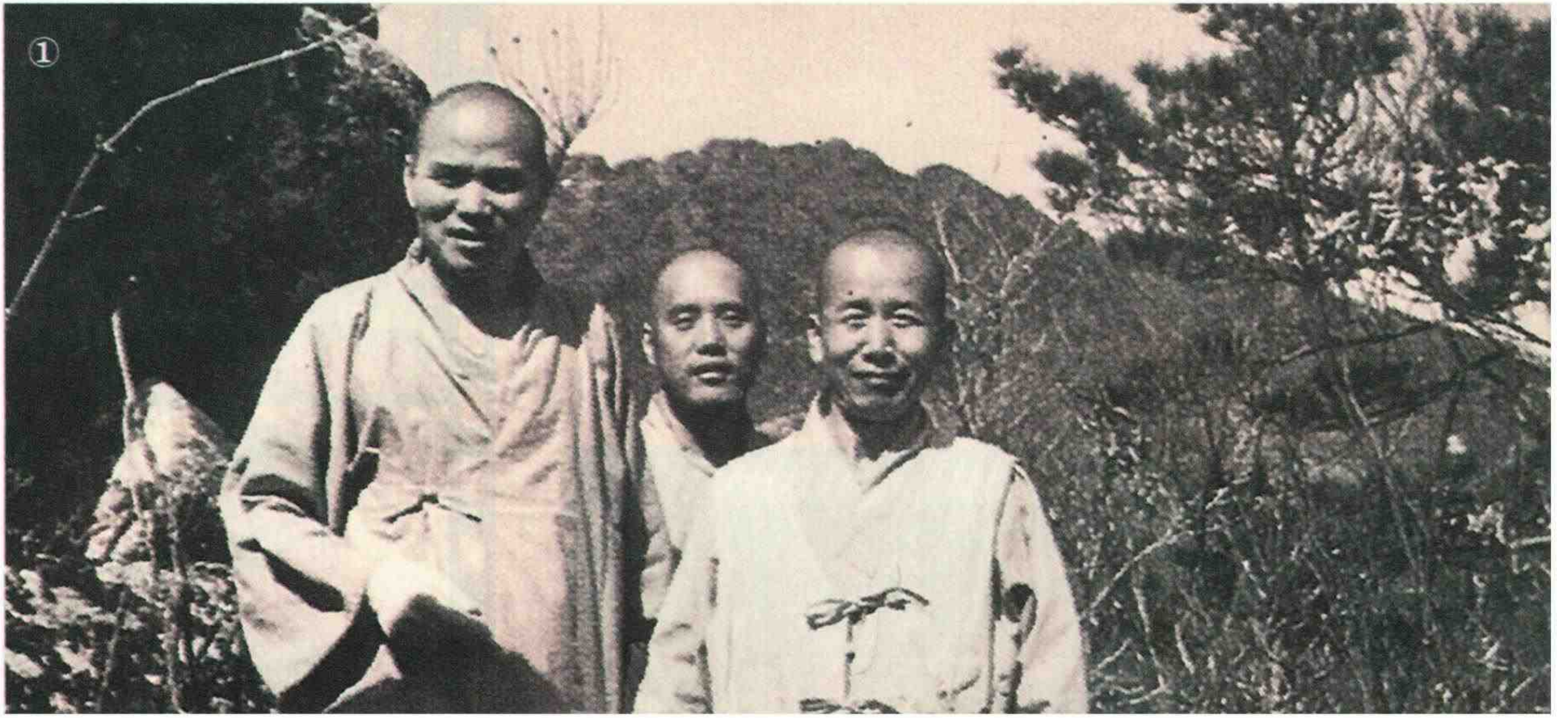
“죽는 듯이 죽는 듯이 살아가고, 사는 듯이 사는 듯이 죽어 가라.”는 언제가 당신의 상당법문에서 처럼 몸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삶과 열반. 曹溪宗主가 되시어 牧牛家風을 더욱 선양하시었고, 특히나 갈수록 탁해져 가는 세태를 안타까워 하시며 [五戒] 노래를 손수 지으시어 보급하는 등 계율 정신의 회복에 남달리 애쓰시었기에 송광사 하면 청정한 수행도량으로 자리잡게 하시었고, 늘 여유롭고 넉넉한 모습으로 후학을 접대했던 회광 승찬 방장스님. 시절의 無常함과 쉼의 도리를 거듭 일깨우시며 열반에 드시자, 사대를 흠으셨어도 후학의 미진한 공부를 위해 의지처가 되고 감로가 되고 등불이 되고 청풍이 되시어 오시듯이 가시었다.

방장스님께서서는 불기 2540년 6월 23일(음) 오후 9시30분에 삼일암에서 입적하셨다.
법랍은 50세, 세수는 73세였다.



1. 방장스님 영정을 모시고 식당으로 이안하는 모습
2. 법어를 하시는 종정 月下 큰스님
3. 永訣辭를 낭독하시는 원로회 의장 慧菴스님
4. 弔辭를 낭독하는 총무원장 月珠스님
5. 弔辭를 낭독하는 종회의장 雪靖스님
6. 방장스님의 행장을 소개하는 法頂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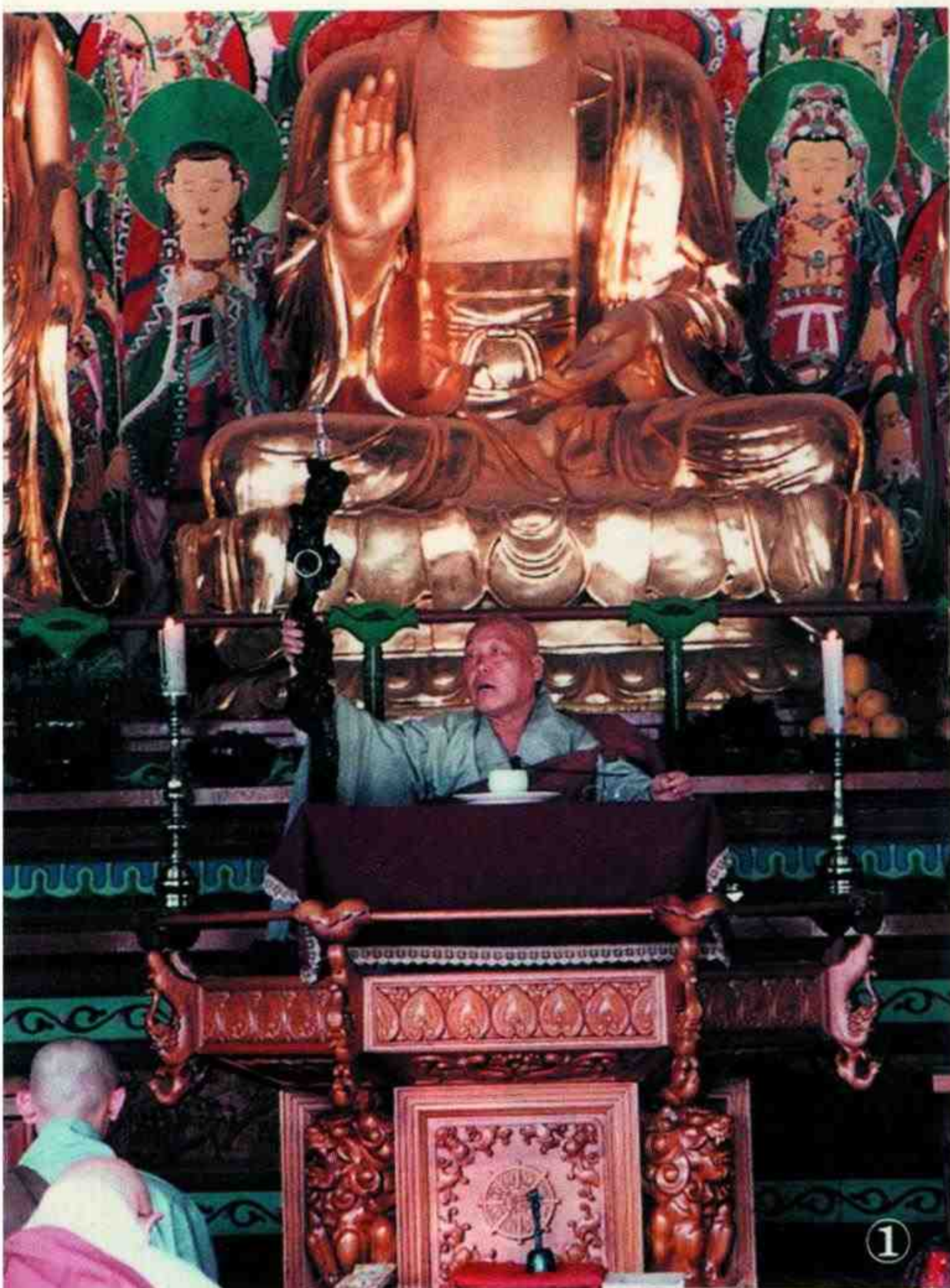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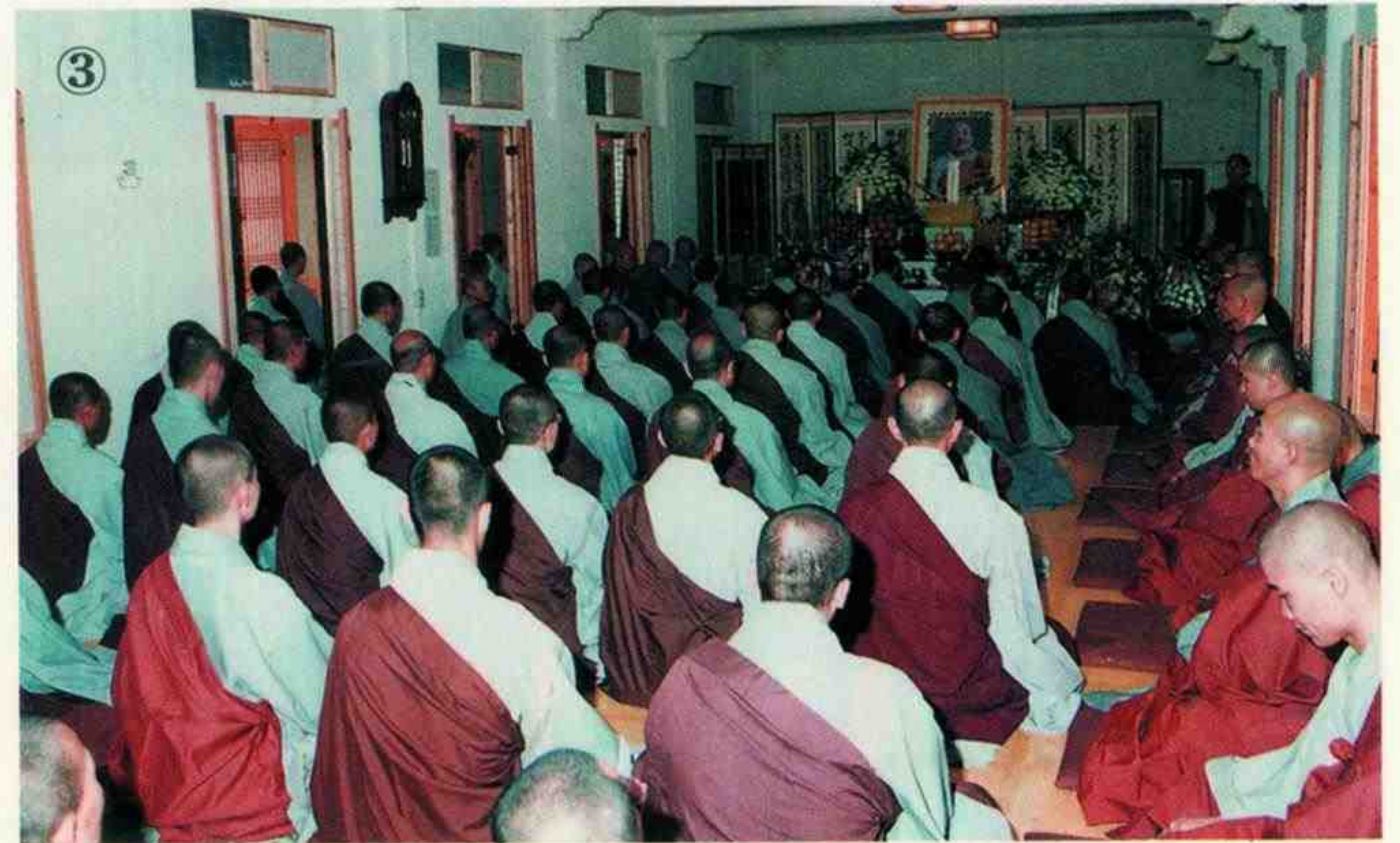
左

좌로부터 성철스님, 일각스님, 서용스님
대만에서 공부할 당시 연을 맺었던
스님과의 환담

외국의 상좌에게 수계 해주시는 모습
젊었을 때 대만에서 수행하시던 모습
생일잔치 때의 천진난만 하신 모습
어린 아이를 안고 즐거워 하시는 모습

右

결제법문을 하시는 모습
분향소로 향하는 많은 참배객
참배하고 있는 해인사 학인스님들
영결식장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
무거운 표정의 문도들





1. 경내를 지나는 운구행렬
2.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대중들로
영결식은 인산대해를 이루었다.
3. 다비식 광경
4. 평소 거쳐하시던 삼일암 방장실
- 5, 6. 방장스님의 진신사리
- 7, 8. 방장스님 유품



⑤ ⑥



⑦ ⑧



불전국역연구원장 혜남스님

대담 : 편집실
사진 : 한운



불전국역연구원은 중앙승가대학 자비관 1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교정에 들어서자 곳은 장마비에 두동 밖 에 안되는 대학건물이 더욱 왜소하 게 느껴졌고 손바닥만한 운동장엔 십여 대의 자동차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미안한 듯 서로 눈치를 보 며 비를 맞고 있었다. 원장으로 계 시는 혜남스님을 뵈고 연구원의 설 립취지와 그 동안의 활약상 등을 여 쭙기 위해 호남선을 네시간이 넘게 탔다. 다섯 명이나 되는 대군단(?) 을 이끌고 학교에 도착했을 땐 약속 시간을 한시간이나 넘겨, 우산을 접 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마음이 썩 밝지가 못했다. “늦어서 죄송합 니다.”라는 말로 인사말씀을 대신하 면서 시작된 혜남스님과의 대담은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의 불전번역 실정과 인재 부재에 대한 걱정으로 일관하셨다.

도은 : 1년전, 승가대학 신문에서 스님이 이곳으로 오셨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때 불전국역연구원이라는 이름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만, 아직도 학인들한테는 많이 생소한 곳인데요, 언제 설립이 됐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혜남 : 불기 2537년('93) 3월 15일에 중앙승가대학 부설로 설립 되었습니다. 처음엔 팔만대장경과 국내, 외의 불전들을 한글로 번역하고 출간까지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이러한 설립취지를 모두 충족시키기엔 도대체 엄두가 안나서 지금은 불전국역사들을 양성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응진 : 종단 내에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혜남 : 동국대 역경원과 여기 불전국역연구원 두군데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

경사를 양성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도은 : 연구원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고 지금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혜남 : 그 동안 1년에 두 번씩 해서 4기생까지 들어 왔는데 1, 2차 시험을 통해 선발을 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서류심사만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스님뿐만 아니라 청신사 청신녀 등을 포함한 모든 사부대중에게 문이 열려 있어요. 연구원들의 학력을 보자면 강원 졸업생이 여덟명, 전문대생이 다섯명, 대학생이 열 다섯명, 대학원생이 한명, 석사가 여섯명, 박사가 일곱명입니다.

본 연구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수과정과 연구과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각 2년과정인데 연수과정이 끝나야지만 연구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연수생은 스님이 다섯분, 재가인 이 스무 분해서 스물 다섯 분이고 연구생은 스님 열분, 재가인 일곱 분해서 총 열일곱 분입니다.

도은 : 학인들(재가인 포함)의 학력이 아주 높은데요, 교수진과 강의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죠.

혜남 : 스님네는 나(중앙승가대)를 포함해서 운제스님(외래강사), 종범스님(중앙승가대), 해주스님(동국대) 네 분이고 재가인은 송찬우교수(중앙승가대), 이종찬교수(동국대), 권영대교수(단국대), 이태승교수(동국대), 오형근교수(동국대), 원의범교수(동국대), 박상수교수(동국대), 전재성교수(한국 불교대)가 계십니다. 그리고 강의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념혜 : 여러 경전 중에서도 한역경전만 연구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혜남 : 처음엔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벳 경전까지 연구를 하려고 했지만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자금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있고 한역경전 하나만 하더라도 꾸

려 나가지가 벽찬 실정입니다. 자금도 자금이지만 요즘은 거의 한글세대라서 그런지 한문 경전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또 한역의 전통발음도 차츰 없어지고 있어요. 전통발음 같은 경우에 일본사전만 보더라도 한음, 당음, 오음 세 가지 발음이 명시돼 있어요. 불교용어들은 거의 오음인데 그러한 전통발음을 그대로 살리고 있죠. 우리나라는 전통발음을 연구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뿐더러 연구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스님네들인데 아무래도 사회활동이 어려우니 제대로 된 사전이 나올리가 있겠어요? 그러니 번역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설사 한다 하더라도 곡해될 소지가 많지요. 그래서 사실은 한역경전 하나만 제대로 연구하는데도 막대한 인력과 재정이 투자된다고 볼 수 있죠.

응진 : 요즘 팔리어 경전이나 범어경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방대한 양의 한역경전이 뒤로 밀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역경전의

가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혜남 : 본래 부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팔리어도 범어도 아닌 그 지방의 방언일 것입니다. 불멸 이후 경전 결집 과정에서도 바로 문자로 옮겨지지 않았고 합송으로 전해져 오다가 문자화 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요즘 팔리어, 범어가 연구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팔리어경전은 20부파중 일부 부파의 경전이며 범어 또한 당시의 범어가 아니라 적어도 7,8세기의 언어입니다. 어떤 경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한역에서 범어로 역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는 시간관념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그 나라 여행을 하다 보면 바로 느낄 수가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경전을 하나 결집하더라도 시간과 인물을 명확히 명시해 놓았어요. 그래서 인도경전 성립사를 연구하는데도 한역경전이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원에서도 한역경전을 원전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잖아요? 전체를 그렇게 평가

하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거의 원전에 준한다고 생각하시면 틀림 없을 겁니다.

도은 : 한역경전이 가지는 번역상의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혜남 : 요즘은 거의 한글세대라서 한문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이들이 드물다 보니 거기서 오는 괴리감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한문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현대 한글세대들에게 제대로 이해를 못시킨다는 점입니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뜻을 알기 쉽게 표현을 못한다는 거죠. 한글세대들은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더 헛갈린다고 그래요. 번역하는데는 직역과 의역이 있는데 글자를 그대로 따라가서 번역하는 게 있고, 뜻으로 하는 게 있는데 직역하는 사람은 뜻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전달을 잘 못하고 아주 문장력이 좋은 사람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원문과

는 영 엉뚱하게 번역한단 말이죠. 이 점이 한역경전을 번역하는데 제일 큰 어려움이죠. 요즘은 둘 다 겸비한 사람이 드물어요. 앞으로는 겸비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충분히 한역경전을 이해하고 한글세대가 알기 쉽게 번역할 수 있는 역경사를 배출하는데 종단적으로나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도 지원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응진 : 종단 내에서의 국역연구원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혜남 :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단의 삼대사업이 포교, 역경, 도제양성 아닙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는 역경과 도제양성을 함께 하는 곳입니다. 특히 역경사를 양성하는 곳이에요. 역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양고승전, 당고승전, 송고승전 등에 역경사가 가장 먼저 실리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불교의 역사는 역경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자라면 누구라도 다 아는 현상이나 구마라집 같은 분들도 역경사입니다. 제가 바라는 바도 그런 역경사를 배출하고자 하는 것이죠.

선문 : 종단내 인식이 좋다면 많은 지원이 있을 것 같은데 스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단의 삼대사업이 포교, 역경, 도제양성 아닙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는 역경과 도제양성을 함께 하는 곳입니다.

혜남 : 종단에서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만 승가대학에서 지원을 받으니 종단에서 지원 받는다고 할 수 있겠죠. 자꾸 돈, 돈 하게 되는데 문제는 바로 나한테 있어요. 내가 게을러서 못하는 거지. 다른 사람 고용 안하고 나 혼자 다 해 버리면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

요.(웃음)

도은 : 한글대장경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은데 동국대 역경원에서 작업한 한글대장경에 대한 스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혜남 :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얻은 고귀한 성과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라 들을 말도 없을 텐데 잘 해보려고 설거지라도 하다 보면 그릇도 깨뜨리는 법이죠(웃음) 일본의 경우 국역일체경 같은 것은 일반인들이 읽고도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직역으로 바로 번역을 했고 읽는 대상이 일반인들이 아니고 학자들이 보기에 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번역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글대장경은 누구를 대상으로 번역되었는가가 모호합니다. 일본처럼 불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인들을 위하여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범한 대다수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통일적인 체계로 역경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응진 : 실질적으로 동국대 역경원과 이 곳 연구원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역경사가 배출되면 그쪽으로 인원이 흡수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혜남 : 아직은 졸업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예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역경원장으로 계시는 월운스님과도 나중에 이 곳 졸업생이 역경원으로 흡수가 된 다든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 곳에서 강의를 하신다든지 하는 협조체계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나눴습니다.

도은 :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스님께서서는 절집에서만 아니라 밖에 사람들에게까지도 화엄경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화엄경을 전공하시게 된 동기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후학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혜남 : 출가를 창녕 관룡사로

했어요. 첫날 대웅전 부처님 앞에 절을 하는데 위패모양의 大方廣佛 華嚴經, 實相妙法蓮花經이라는 두 글귀가 눈에 띄어서 주지스님께 여쭙어 보니 부처님 말씀 중에 두 경전이 쌍벽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화엄경을 열심히 봐야겠다는 생각을 초발심 때부터 하게 됐죠. 나중에 범어사 강원에서 고산스님 밑에서 화엄경을 보고, 선방에 얼마간 다니다가 운기스님 밑에서 두 번째로 보고 다음에 각성스님 밑에서 십지를 보고 결국 운기스님 밑에서 전강을 받았습니다. 보통 때는 누가 콩을 팔이라고 해도 시비를 안해요. 그런데 논강시간만 되면 그런 게 없어요. 조금만 틀리다 생각하면 바로 지적해서 토론을 하곤 했죠. 뒤에 오대산에서 탄허스님께서 화엄법회를 여셨는데 여기저기서 중강, 강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서도 다른 스님들은 꿈쩍도 못하는 큰 스님께 제 생각은 다르다고 몇 차례 대들고 그랬어요.(웃음) 아마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화엄이 전공이라고 널리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지로는 대학에서의 전공도 다르고 화엄교리를 깊이 있게 연구 한 적도 없고 단지 입으로만 ‘나는 화엄을 한다’하고 있어요.(웃음)

념혜 :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는 얼마나 계셨습니까?

혜남 : 한 십년 있었죠. 학부에서 박사과정까지 딱 십년 걸리더라고요. 거기서 불교학이 아닌 동양철학을 전공했어요. 그때 ‘화엄 소추에 나타난 진관의 유·도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념혜 : 언어 때문에 고생은 안하셨는지요?

혜남 : 지금도 사실은 언어에 대한 장애가 있습니다. 보통 십년 하면 외국어도 유창하게 할 수 있다는데, 내가 일본에 갈 때가 마흔이었으니까 발음 문제가 해결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고 여하튼 언어 때문에 학업

도 미진했고 품위 있는 대화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선문 : 요즘 교학을 하는데 일본어는 필수고 일본에 직접 가서 공부하려는 학인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본유학에 대한 스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남 : 권유 할만 합니다. 교학은 일본이 제일 발달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무조건 가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이런 경우 원

효, 의상스님 일화를 자주 들곤 하는데, 우리는 도를 깨치는게 목표지 않습니까? 유학자체가 목적이 되서는 가더라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도은 : 끝으로 다시 강당에 오셔서 학인들을 가르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혜남 : 강당보다는 선방에 가서 여실히 참구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이 나이 돼서 선방

간다고 하면 다들 웃겠지만 요즘은 정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도은 : 오후에 강의도 있으시는데 시간을 너무 뺏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혜남 : 아니요, 이렇게 먼길을 찾아 줘서 오히려 내가 고맙죠. 그럼, 길도 미끄러운데 조심해서 가요.



송광사의 복 많은 친구들

사집/연각

1) 모기

오랜 가뭄 끝에 이틀째 단비가 내리고 있다. 송광사를 감싸고 도는 계곡에는 어느새 물소리가 거세 지고, 일주문 옆에 있는 불일 폭포에도 모처럼 물이 넘쳐 흐른다. 그렇게도 더웠던 날씨도 어느덧 빗소리에 움츠러들고 오히려 한기가 느껴지니 오늘은 모기장으로 방어선을 치지 않아도 좋을 듯싶다.

여름이 되면 산중에서는 모기가 가장 곤혹스런 도반이다. 산 속의 모기는 유난히 독해서, 한 번 물리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삼경이후에는 모기장을 치기 때문에 그나마 공격을 피할 수 있지만, 예불시간만큼은 무방비 상태라 먹을 수 있을 만큼 실컷 먹고 난 후 날기조차 힘겨운 듯 통통해진 배를 내밀고 무겁게 나르는 모기들을 보고 있노라면 절 집에서

는 저 놈들마저도 호강하는구나 싶다.

2) 메기

송광사 주변의 계곡은 그리 물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가물때도 끊이지 않고 꾸준히 흐른다. 계곡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물이 고여 있는 웅소가 몇 군데 되는데, 이런 곳에는 물고기들이 살기 마련이다.

얼마전 오전 강의가 끝나고 한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 지대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도반스님이 차담용 빵을 하나 챙기더니, 잠깐 바람 쐬러 경행이나 하잖다. 마침 다른 할 일도 없고 해서 따라나섰는데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다 첫 번째 웅소에서 멈추었다. 그리고는 내게 소개해 줄 친구가 있다며 빵조각을 밤알만하게 떼어 내더니 물가 바위측면에 물에 잠길 듯 가만히 대고는, 자갈을 하나

집어들어 바위를 탁탁 치기 시작했다.(스님과 약속된 신호란다.) 몇 번을 그렇게 하니, 드디어 주인공이 나타났는데 20센티쯤 되어 보이는 메기 한 놈이 여유 있게 바위 밑을 따라 한바퀴 미끄러지듯 돌더니만, 자연스럽게 물위로 올라와 빵을 먹는다. 스님은 엄지와 검지로 빵을 잡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메기 머리를 쓰다듬으니 녀석은 놀라지도 않고 슬며시 빠져 나간다. 언제 저렇게 친해졌나 싶어 신기한 듯 보고 있으니, 다른 메기들도 하나 둘씩 바위틈에서 나왔다. 조막만한 녀석부터 몇십 센티가 족히 넘는 녀석까지...

얼마나 잘 먹고 사는지 피부에 윤기가 흐르는게 보통 호강하고 사는 녀석들이 아닌 듯싶었다. 전날 감추어 두었던 빵이 없어졌다고 찾는걸 보면 스님 말고도 메기를 친구로 사귀

고 있는 스님이 한 둘이 아닌 듯 하니, 스님을 친구로 사귀는 매기라.

얼마나 복 많은 녀석들인가!

어쨌든 오늘도 그 스님은 사시공양후 경행시간이 되니 슬며시 빵 하나를 챙겨 들고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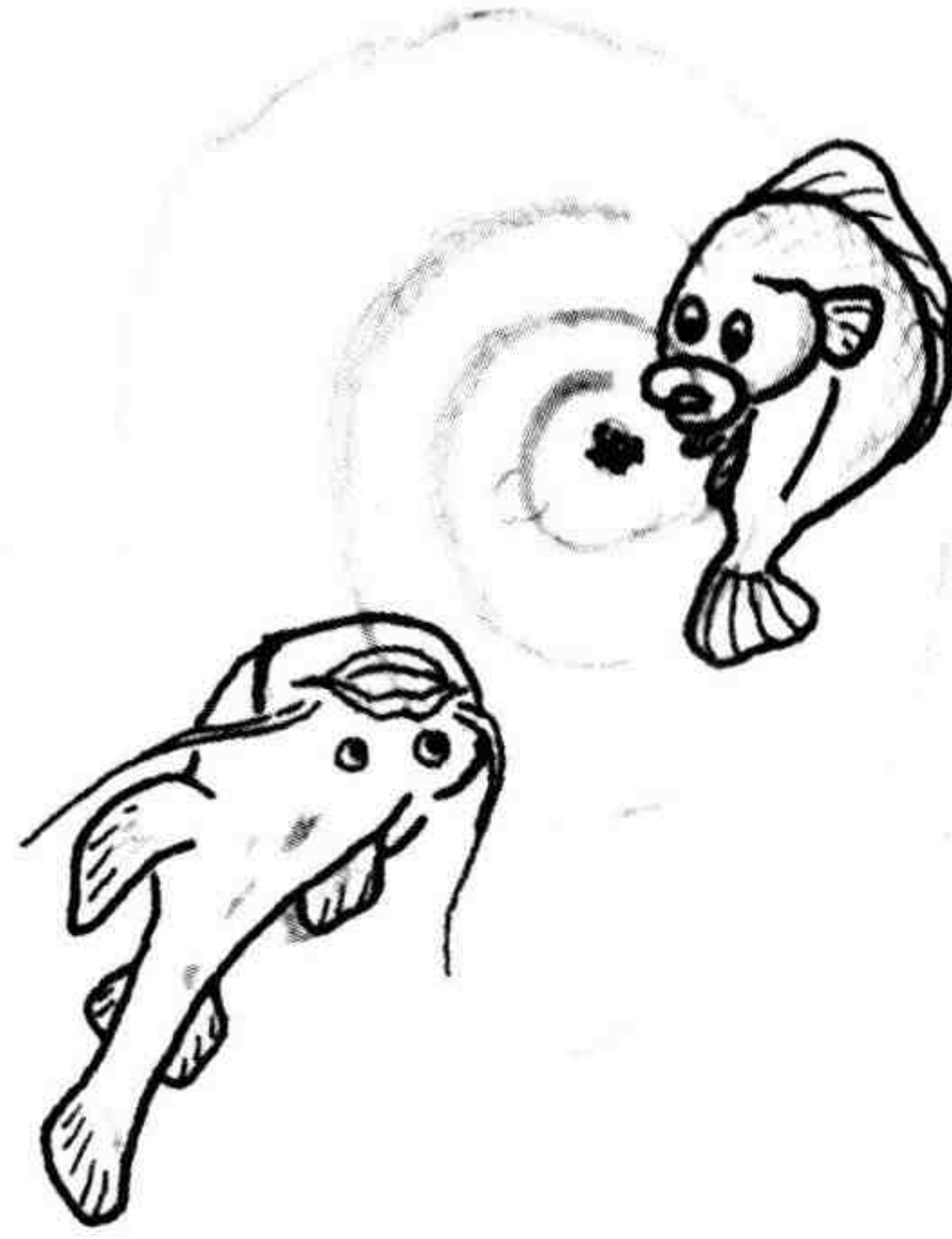
“스님! 사람도 못 먹는 빵을 또 가지고 나가요?”

“사람이 못 먹는 거니까 가지고 가지요.”

3) 불일 폭포의 작은 고기들

서점 옆, 불일폭포 밑에도 작은 고기들이 산다.

이 곳은 관광객들의 눈에 잘 띄는 곳이라서 유난히 귀여움을 많이 받는데, 먹을 것은 스님들뿐 아니라 서점보살님, 그리고 관광객까지 푸짐하게 던져 주는 덕분에 실컷 포식할 수 있다. 주는 사람이 많다보니 메뉴도 다양해서 매일 새로운 맛을 즐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랴. 어떤 관광객은 입맛을 다셔 보기도 하지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부처님 가피로 잡혀 죽을 염려도 없으니 녀석



들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보다.

4) 고소 먹고 사는 꿩

송광사 주변과 암자 근처에는 유난히 꿩들이 많다.

한결같이 살들이 통통하게 찌서 보기 좋은 자태를 자랑하고 있는데, 밭에 곡식들을 마음편히 먹을 수 있는 데다, 밖에서는 구경하기도 힘든 고소씨까지 먹고사니 그럴 수밖에.

“고소를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되어 신경통이나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저 녀석들은 그 좋은 약을 먹고사니 아마도 관절염이나 신경통은 없을 거야!”라고 하시던 은사 스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사

냥꾼의 위협을 모르고 살 수 있어 분명 부처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랴.

5) 연각

부처님 품안에 살고 있는 유정물뿐만 아니라 무정물까지 그 무엇하나 복 받지 않은 것이 있을까마는 그 중에 훌륭한 도반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찌 복이 적고 많음을 헤아릴 수 있으랴.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하고 존경스런 분들을 시봉하며, 더불어 훈습 받을 수 있음은 더 없는 행복이다.

‘송광사에서 제일 복많은 놈이구나’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정말로 복많은 놈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위없는 깊고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거늘, 내가 지금 듣고 보고 받아 지니오니,’

이보다 더 큰복이 어디 있으리요. 오늘도, 스님들의 장엄한 염불소리와 함께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그날을 간절히 그려봅니다.

出家.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

사집/일대

집을 나서기전, 얼마나 많은 번민과 각오로 자신을 다독거렸던가!

그 갈등의 오랏줄을 단칼에 싹둑잘라 버리고, 위 없는 수행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떠나는 발걸음이 썩 가볍지 못했던건 어버이 은혜를 저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가장 컸으리라. 출가한지 삼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도 가슴 한 구석에는 어버이께 효도를 다하지 못한 응어리가 분명히 남아 있다.

때론 목이 메는 죄책감으로 잠자리를 뒤척이며, 때로는 거역할 수 없을 것 같은 천륜의 정(정)이 한스러울 때가 있다. 무척이나 힘들었던 행자시절, 남들처럼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아 주기를 바라며, 눈물을 뿌리시던 모친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몇 번인가 와서 당신들의 모습을 비출 때마다 산으로 숨기도 했으나, 끝내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뗏뗏이 허락을 얻어서 생활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일 것 같고 또한 바람직한 모
몇 번인가 와서 당신들의 모습을 비출 때마다 산으로 숨기도 했으나, 끝내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습일 것 같아 뵈고서 의지를 말씀 드렸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로 “지금까지 너를 키웠지만, 이렇게 매정한 모습은 처음이다.” 하시며 한없는 울음을 터트리셨다. 그렇게도 높아만 보였던 아

버지의 어깨도 같이 흐느꼈다. 아버지의 눈물을 본 것은 할머니의 죽음 이후 처음이었다.

몇 번이고 타이르듯 돌아가자고 하셨지만 삭혀질 고집이 아님을 아셨던지 훌쩍 뒤돌아 등을 보이며 내려가시던 당신의 모습 속에서 나는 똑똑히 눈물을 보았다.

그 진한 천륜을 뒤로한 채 올곧게 수행의 길로만 걷고자 했던 결심이 지금은 어떠한가?

여기에 최상의 가치가 잠재해 있으리라 확신하고, 이 길이 아니면 안된다는 절박감으로 달려오지 않았던가! 그런 만큼 그 의지가 굳건해져야 하고, 삶의 질서를 찾고 진리의 세계에 흠뻑 젖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론 세속의 습관이 생활 속에서 묻어 나오는가 하면, 과거를 추억 삼아 상념에

아직도 길을 가는 중이라 여러 가지 오류들을 범하고 반성도 해보지만, 그 실천을 행함에 있어서는 더디다 못해 아예 발걸음조차 잘 띄어지지 않는다. 이제는 꼭 짜여진 일과 속에서도, 나름의 여유는 찾은 것 같고 거기에 어떤 원력이 있어 매진하기만 한다면 수행에 큰 힘이 되겠는데...

젖곤 한다. 지금도 미혹한 견해가 이토록 많은데, 하물며 출가하기 전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말해 무엇하겠는가.

아직도 길을 가는 중이라 여러 가지 오류들을 범하고 반성도 해보지만, 그 실천을 행함에 있어서는 더디다 못해 아예 발걸음조차 잘 띄어지지 않는다. 이제는 꼭 짜여진 일과 속에서도 나름의 여유는 찾은 것 같고 거기에 어떤 원력이 있어 매진하기만 한다면 수행에 큰 힘이 되겠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어찌하여 그대는 削髮染依(삭발염의) 했는가”이 말을 되새길 때면 한 없는 후회와 반성이 몸서리로 변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생각의 끝

을 부여잡고 번민에 떠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 부질없는 상념에 마음을 뺏기어 얼굴 색까지 변하는 모습을.

걸식을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어느 농부가 물었다. “당신은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어찌 밥을 공짜로 달라고 하십니까?”

이때 부처님께서서는 대답하시길 “나도 역시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입니다. 당신이 봄에 씨를 뿌리듯 나 또한 자비의 종자와 법의 종자를 뿌립니다. 비는 고행이며 명에와 가래는 지혜입니다. 쟁기는 과거의 반성, 가래를 묶는 줄은 思慮(사려)이며, 삼은 思念(사념)입니다. 나에게 명에 지운 소는 바른 노력이며, 되돌아가지 않고 안전한 장소에 인도합니다. 그 곳에 도달하면 고뇌는 사라집니

다.”

그렇다! 삶의 목적은 모든 고뇌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이다.

너무나 큰 가피와 은혜 속에서 살다 보니, 삶의 본질과 때로는 왜! 머리를 깎았는지조차 망각할 때가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나의 삶은 진리의 탐구와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다.

출가! 그 아름다움을 동경하고 실천하는 자, 그 아름다움의 길을 찾아 삶의 오랏줄을 풀어헤친 참된 구도자들에 박수를 보낸다.



새 벽

사집/일상

졸음에 겨우 새벽예불을
마치고, 정신을 차려
논강시간 설왕설래...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새벽공기를 가르며 포행을 나
선다.

법성료 맞은편 사자루에는,
벌써 일과기도를 하는 스님의
하얀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사천왕문을 지나 우화각 앞
에 서면 비온 뒤라 청량한 물
소리가 가슴 저 밑바닥으로부
터 무엇인가를 쓰러 내리며
들려 온다. 쓰러질 듯 버티고
있는 일주문을 지나 무엇을
전하려는지 무심히 자리를 지
키는 비석들이 안개 속에 묻
혀 있다.

언제 잠에서 깨었는지 산새
들이 지저귀고, 고목나무 사
이로 뿌연 하늘이 나를 반긴
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세
음보살, 나무미륵불...

마음속에는 부처와 보살님
들이 생멸하고, 그 사이로 비
집고 들어서는 온갖 망상들

일어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나
하면 다시 일어나는 온갖 허
상들.

나뭇가지 끝으로 뿌연 안개
가 걸려 오도 가도 못하고,
햇살이 돈을 새라 나무를 어
루고, 길옆 시냇가에는 오늘
따라 물소리가 우렁차다.

이 길 따라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냥 가버릴까.
아냐, 아침공양은 하고 가야
지. 아이고 이 망상덩이 스타
타가토스니삼...

돌아서면 다시 나뭇가지 끝
에 하늘이 걸려 있고, 그 신
비함이 나를 반긴다.

발끝에 와 닿는 촉감을 느
끼면서 한발 한발 땅을 밟아
본다. 언제나 이 길을 다니면
서도 느낌이 새롭다. 들숨, 날
숨을 하나 하나 세어 보고,
팔의 흔들림, 온몸을 느끼면
서 한발 한발 조심스리 내딛
는다. 이런 낙원이 또 있을까.
지상의 낙원, 이 순간 나는
낙원에 있다. 얼마나 감사하
고 경이로운 일인가. 스타타

가토스니삼...

제재소 앞에 떨어지는 물을
온몸으로 느껴 본다. 세상에
어떤 표현을 빌려 써야 부족
함이 없다 할까. 그냥 보고만
있다. 달리 무엇이 필요하겠
는가. 그냥 보고만 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서 비전을 지나
일주문 우화각 앞으로 해서
화엄전으로 향한다.

각 전각의 역사나 쓰임에는
별 관심이 없다. 다만 이 한
순간 화엄전, 나무, 맑음, 공
기, 새소리, 안개 그리고 걸어
감, 느낌,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 신선함, 이 모든 것의
조화.

저 앞에서 도반스님들이 오
고 있다. 조금 있으면 공양
시간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다시 오
소서. 나무 미륵불, 빨리 오소
서. 나무 관세음보살,

어서 오소서. 내 마음속 불
보살들이여 빨리 나투소서.

무집착(無執着)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천인이 문안 드리고 여쭙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은 항상 근심, 걱정 속에서 놀라고 두려워하나니, 재물과 명예를 얻은 사람이나 얻지 못한 사람이나 기쁨에 들뜨지 않고 괴로움도 느끼지 않으며, 평온한 마음으로 사는 길을 말씀해 주소서.”

부처님께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지혜있는 사람이라면
 애써 행하고도 자신을 잘 다스려
 자기가 한 일에 매달리지 않나니
 그 같은 사람 빼고서 누가 생사를 벗어나리.
 자기가 한 일을 놓아버리지 못하면
 항상 생사의 흐름에 빠져
 놀라고 두려워하나니
 온갖 근심, 걱정의 고통에 얽매여 있으리라.”

별역잡아함경 제9:181경:〈2-439상〉

불꽃놀이

대교/보적

벌써 밤이다
들리는 소리는 시계소리, 정적
한발자국 물러선다
발자취는 누구의 것인가
운명의 북소리 울리고 우리도 죽어간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간다는 소리도 못하고
한숨 내쉬며 끊어진다 끊김 뒤에 타오르는 불빛
긴 그림자 드리우며 멀리 떠나간다
망상은 나에게 두려워하라고 속삭이지만
그대여 어디 있는가
이제 누가 그대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부를 사람도 사라진 지금 대답조차 할 수 없네
내 간 뒤에 긴 여울남아 흐를 것을
소리도 없이 어미 품속으로
그대여 이제 농담 마오 농담 마오
듣는 아이 가슴마다 밤새워 이불을 적신다오
밤이 오다
지칠 때는 언제이던가
생각이 나면 크게 웃으시오
사랑도 끝이 나고 갈증도 동이 나고

이제 남은 것은 빈 껍데기뿐이랴오
 축 늘어지다
 투명한 축제 뒤에 눈부신 햇빛
 그것을 즐기는 눈들
 아름답다 아름답다
 말할 수 없이 아름답다
 그저 침묵뿐
 갈증도 쉬나이다
 눈 크게 뜨면 모든 것 보이나이다
 소리도 죽고 냄새도 죽고 맛도 죽어버리나이다
 무엇이 남았는가 답답워라 답답워라
 기도는 누가하오
 아! 님이시여 소리는 누가 치오
 부끄럼도 사라져가오 할 말은 많아지오
 그대야 희망이 없거든 밝음을 낳아라
 너무 급하면 체하지는 않을까
 때로는 숨도 쉬고 얘기해야지
 누가 그대를 평가 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렴
 정직하다는 것 아름답다는 것
 밥먹을 시간이다



들깨 모종 울력

사집/연봉

큰 방에서 울력을 알리는 목탁소리를 듣고 원주실 앞에 모여 연장을 들고 텃밭으로 향한다.

치문반 스님들이 먼저 가고 뒤를 사집반 스님과 경반 스님들의 여유로운 발걸음이 따르고 있다.

텃밭에 도착하니 처사님들이 들깨모종을 뽑아 영양제에 한번 담근 다음 차곡차곡 쌓아 놓고 있고, 입승스님은 여기 저기 훑어져 있는 밭의 크기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시고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일러주고 계신다.

나는 한 마지기 남짓 되는 밭에 일곱 스님네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밭이 거름지지 않아서인가, 늘 살펴보는 정성이 부족해서

인가, 들깨모종이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실한 놈들로 골라 대야에 담고 밭으로 향했다. 대부분 스님들이 처음 하는 일이라 익숙하지 않고, 야산에 텅구는 돌덩이도 아닌 엄연히 살아 숨쉬는 생명인지라, 손놀림은 더욱 신중하여, 느리다 못

비록 신통치 않은 실력일지라도 포기 포기마다 정성을 다해 심는 저들이 바로 진실로 생명을 사랑하는 실력 있는 농사꾼임을.

해 정지화면을 연상하듯 하니 혹시 농사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본다면 웃음깨나 참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리라. 비록 신통치 않은 실력일지라도 포기 포기마다 정성을 다해 심는 저들

이 바로 진실로 생명을 사랑하는 실력 있는 농사꾼임을.

입승스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한 스님은 호미로 50센티 간격으로 구덩이를 파고 다른 스님은 들깨모를 두 개씩 놓고, 나머지 스님들은 들깨를 정성껏 심어 나가니 일이 훨씬 수월하다.

요즘은 농사를 직접 경험하신 스님네가 드물지만 나중엔 수행의 방편으로 농사를 꼭 짓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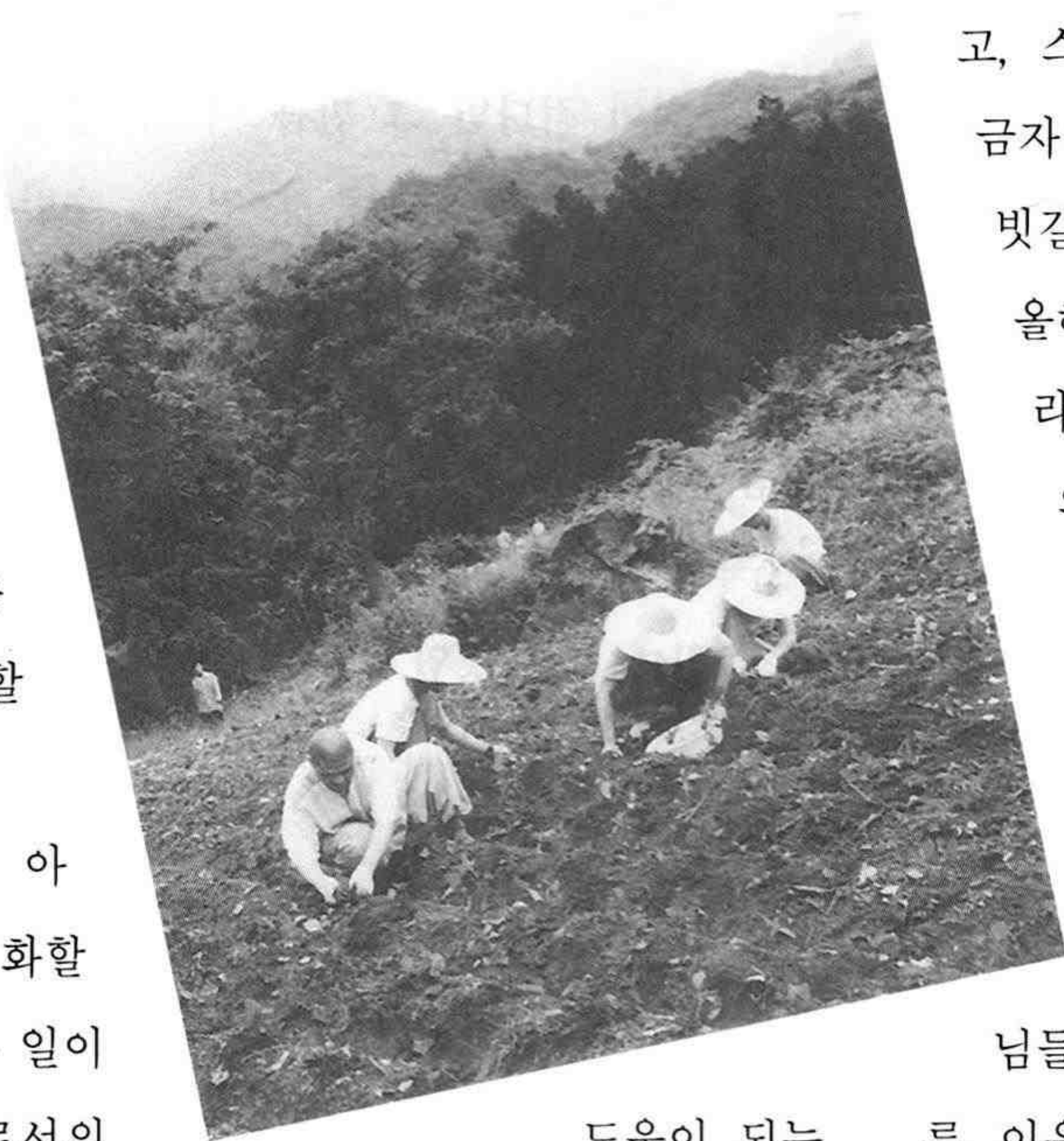
사실 스님네들이 농사를 짓는 행위는 비구가 지닌 본래 의미인 걸식에 어긋나지만 인도와 달리 중국과 한국에서는 걸식이 대다수 민중들에게 매우 이질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토착화 되지 못했으며, 그렇다

고 국가권력에 의지하는 것은 왕권에 예속되는 것이었으므로 승단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그 결과로 현재의 총림제도가 등장하였으며 철저한 노동정신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종단 현실 속에도 이러한 노동정신은 불협화음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직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요즘은 환경문제가 심각한 시대이기에 농사를 직접 짓는다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권장되어야 할 환경운동인 셈이다.

강원에서는 같은 반이 아닌 다른 반 스님들과 대화할 시간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강원은 스님으로서의 모든 위의와 자질을 함양하고, 생활 그 자체가 수행인 곳으로 끊임없이 바깥으로 치닫는 우리의 마음을 늘 자기에게 돌리며, 진리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고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는 원칙이 행해지는 곳인지라, 누구와 여유롭게 대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울력 또한 강원생활의 연장이며 수행이지만 조금은 낮설고 딱딱한 분위기를 온화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 아랫반 스님들은 보통 이런 울력시간을 통해 윗반 스님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초발심의 자세를 새롭게 추스르곤 한다.

저쪽 밭에서는 대응전 부전을 보시는 정륜스님이 사교반 종지스님께 창불의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스님네들이 갈수록

산업문명에 상처를 입어 이제는 회복할 자정 능력조차 상실해 가는 땅의 아픔을 달래듯 열심히 모종을 심고 계신다. 하늘도 그 마음을 아는지 비를 내린다.

빗발이 굵어 갈 무렵쯤 산중턱의 밭에는 들깨들이 모두 새로운 보금자리에 자리 잡았고, 스님네들도 당신들의 보금자리인 큰 방으로 향하여 빗길을 재촉하기 시작한다. 올해도 들깨는 대풍작이리라. 처사님들과 스님네들의 정성, 그리고 적시에 내리는 비, 그 비를 맞으며 내려오는 스님네들의 표정 또한 풍작을 예견하는 듯 밝기만 하다. 사실 스

님들의 표정이 밝은 또 다른 이유는 늘 울력이 끝나면 준비되는 차담 때문이기도 하다. 다각스님들과 행자님들이 준비한 맛있는 국수를 때아닌 때에 먹는 이 행복은 아마도 송광사 강원스님네들이 아니라면 누가 알겠는가.

여전히 비는 내린다.

비전(碑殿) 斷想

대교/정묵



사무침

천년 만년 가라고 돌비석에 새겨 놓은 옛 스님의 행장도 흘러져 가고, 부휴당 선수 스님의 부도를 비롯한 先師님들의 탑 이름마저 지워져 가는 부도밭에 앉아 대숲 끝에 걸린 서녘 해를 바라보노라면 절로 無常이 스며들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무상함은 얼마나 깊은지.

부처님의 거룩하신 상호를 우리를 적엔 님을 만난 것처럼이나 가슴은 뛰놀고, 경전을 펼칠 때는 낯선 거리를 헤매일 적 안내인을 만난 것처럼이나 기꺼우며, 열심히 수행하는 이들을 대할 때에는 어둔 밤길에서 동행인을 만난 것처럼이나 반갑고 힘이 솟으며, 숨을 삼키고 들이킬 적엔 중생의 은혜를, 행여나 그리움이 밀려올 땐 도반의 소중함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그리움에 사무쳐 잠을

못 이루듯, 법에 대한 사무침으로 지금 깨어 있는가.

사무침이 적다면 그 만큼 이 길에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 진실함이 없는 이는 기약 없이 헤매이며 영원히 맴 돌 수밖에 없음. 사무침이 깊어 온통 뼈마저 녹여 버렸을 때, 그 때야 비로소 길에 오른 것임.

꿀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까막 까막 챙김을 잊어버리고, 경계를 따라 흘러 버린 뒤에야 ‘아차’하는 덜 여물음. 벌써 꼭지가 떨어졌기를 바람은 너무도 성급함인가. 그래도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른 것 같은데 동안 너무도 방일했던 것이겠지.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내미는 수많은 꿀(=相)들. 어찌면 보통 사람보다 꿀 하나를 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

른다. 꿀이 많으면 꿀사납게 되고 결국 스스로의 꼬락서니가 엉망이된 중생 꼬락서니가 될 수밖에 없고, 이 꿀이 떨어져야 정말 꿀 좋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데도 우리는 저마다 제 꿀에 취하여 산다.

꿀 자랑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요 꿀을 떼려 가는 길인데 어찌시려나?

꿀에 취하지도 말고 굳이 부수려 하지도 말라고. 그저 관세음보살 한마음으로 갈 뿐.

다실에서

비전에 올라와 살게 되면서 얼마 안 있어 피우게 된 망상이 다실을 만드는 것이었다.

머물게 된 방 위에 빈 공루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쌀을 넣어 두는 뒤주 등 여러 물건들을 두는 창고 비슷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공루일 뿐으로



이것저것이 너저분하게 어지러운 곳이었다. 하지만 그 곳에서 바라보는 주변 전망은 너무도 좋았다. 마침 감나무를 에워싼 대들을 보원 스님이 베어 놓았기에 그것을 주어다가 보적 스님과 함께 벽을 만들고, 바닥에는 법성료 다락방에 깔렸던 다다미를 올려다 깔았다. 하고 보니 스스로 만큼이나 영성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그 영성한 자연스러움이 주변으로 펼쳐진 부드러운 산능성을 비롯한 대숲과 옛 돌담 등과 어울려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보기 힘든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으니, 세상에 제일 가는 다실이 된 듯 싶다.

마음이 활짝 열린 날에 그곳에 있노라면 새소리는 법음으로 퍼지고, 대숲 끝에 걸린 서산 해는 밝은 지혜를 연다. 또 밤엔 달님이 청량한 미소

띄우며 대보살이 되어 천중들인 별들과 어울려 화엄 무진 법계를 펼쳐 낸다. 그런 다실이 있으니 차를 많이 마실 수밖에 없고, 더러 손님이 와도 방보다도 그 곳에서 차 한잔을 나누게 된다.

“원컨대 함께 나누는 이 한잔의 차가 감로로 화하여 애욕의 갈증에 타는 중생의 목마름이 쉬고 무명업장 속에 숨어버린 지혜가 싹을 틔우소서.”하며 보살의 흉내를 내면서 말이다.

때로는 억지로 감로차로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법담을 한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앵무새의 조아림뿐 오히려 감로가 독약이 되는 일이다. 그저 차나 마시면 그 뿐.

열매를 가꾸듯이

지난 산철에 옆방에 머물던

보원 스님이 별교에서 수박이며 참외, 토마토 씨앗을 구해와서 뒤뜰 공터에 비닐을 치고 씨앗을 뿌려 싹을 틔우셨다. 괜한 일을 한다 싶었는지 다른 도반 스님들이 도와주지 않는 데도 하루에 몇 번씩 살펴보시며 갖은 정을 쏟았다. 그러나 갑자기 대밭심을 하셨는지 하안거 방부를 선방에 들이시고 훌쩍 떠나고 난 뒤, 애꿎게 싹들만이 애비 없는 자식들이 되고 말았다.

떠나기 전 요모조모 심을 곳과 방법을 알려주고 부탁도 했지만, 천성이 게으르고 무엇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정을 드리는 성격과는 거리가 먼지라 엄두도 안나고 해서 결제를 하고도 거의 보름을 다 넘기었다. 하지만 보원스님의 정성 탓으로 잘 자란 싹들을 외면 할 수가 없어, 시간이 좀 나는 삭발

일에 마음씨 좋은 사교반 한운 스님을 데리고 와서 일을 벌리니, 얼마 안 있어 포행길의 선방 수연 스님과 사교반 송원 스님이 지나가다 보시고 도와 주신 덕에 옮겨심기를 저녁 공양 전에 마칠 수 있었다. 비록 몇 포기씩밖에 안된다 하지만, 보원스님이 하안거 해제 뒤에 오시면 아마도 부처님과 강원 대중 스님들께라도 한 번쯤은 공양 올리고, 종묘상 보살님과 의약속도 지킬 수 있으리라.

그런데 장마비가 너무 굵다. 무사히 이 장마를 넘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릴 수 있도록 잘 가꾸어 가다 보면 자신 또한 얼마만큼은 그 모습을 닮을 수 있을 성싶다.

북극성처럼

날이 개인 여름 하늘. 은하수가 길게 늘어서고 별들은 보옥을 뿌려 놓은 듯 아름답다. 바라보노라니 문득 추억에 잠기게 했다가 이제는 이렇게 있는 모습을 비춘다.

지금 이 길을, 저 하늘에 별처럼 모두의 우려를 받거나

저렇듯 스스로를 저 높은 곳에서 빛내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별빛이 되어야 하리라. 어두운 밤길 가는 이들의 친구가 되고 길을 안내하려면 말이다. 그런데 저 수 많은 별들 가운데 어느 별이 될까.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돌아가는 요즘, 뭘 할 줄 모르면 포교도 못한다, 뭘 모르면 이야기가 안 통한다고 하며 산 속에 사는 이들마저 위협을 해대는데, 그거 다 하자면 무딘 재주로는 중노릇 익힐 겨를도 없을 듯 한데, 어느 별이 좋을까!

북극성이 좋을 듯 싶다. 제자리에 울연히 멈추어 있기에 못별들의 움직임에 중심이 되고 길가는 나그네들의 안내인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저 따라 마냥 함께 돌다 보면 서로가 길을 잃은 양이 될 수 밖에 없다. 늘 그 자리에 서 있기에 폭풍우 거센 어두운 밤바다에 등대 불빛처럼 성스러운 아름다움이 된다.

답장

법성료 뜰과 사자루 앞의 길 사이에는 소박하면서도 정감

있고 담박스런 흙돌담이 있었다. 때로 밖에 다녀올 때마다 그 앞을 지나노라면 늘 편안함이 스며들어 지친 마음이 풀렸는데, 하안거 해제를 하면 곧 시작될 법성료 불사를 위해 헐어 내졌다.

대중의 수가 늘어나서 해청당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한시가 시급한 불사라 하지만 그담이 헐리는 날은 법성료의 불사도 왠지 싫었다. 늘 가까웠던 벗을 잃은 듯한 허전함이란 무상을 아는 마음만으로도 금시 달래지는 것은 아니었다.

중생이란 늘 그런 아쉬움을 남기며 산다. 하지만 텅비고 나서야 새로움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 안팎으로 모두 비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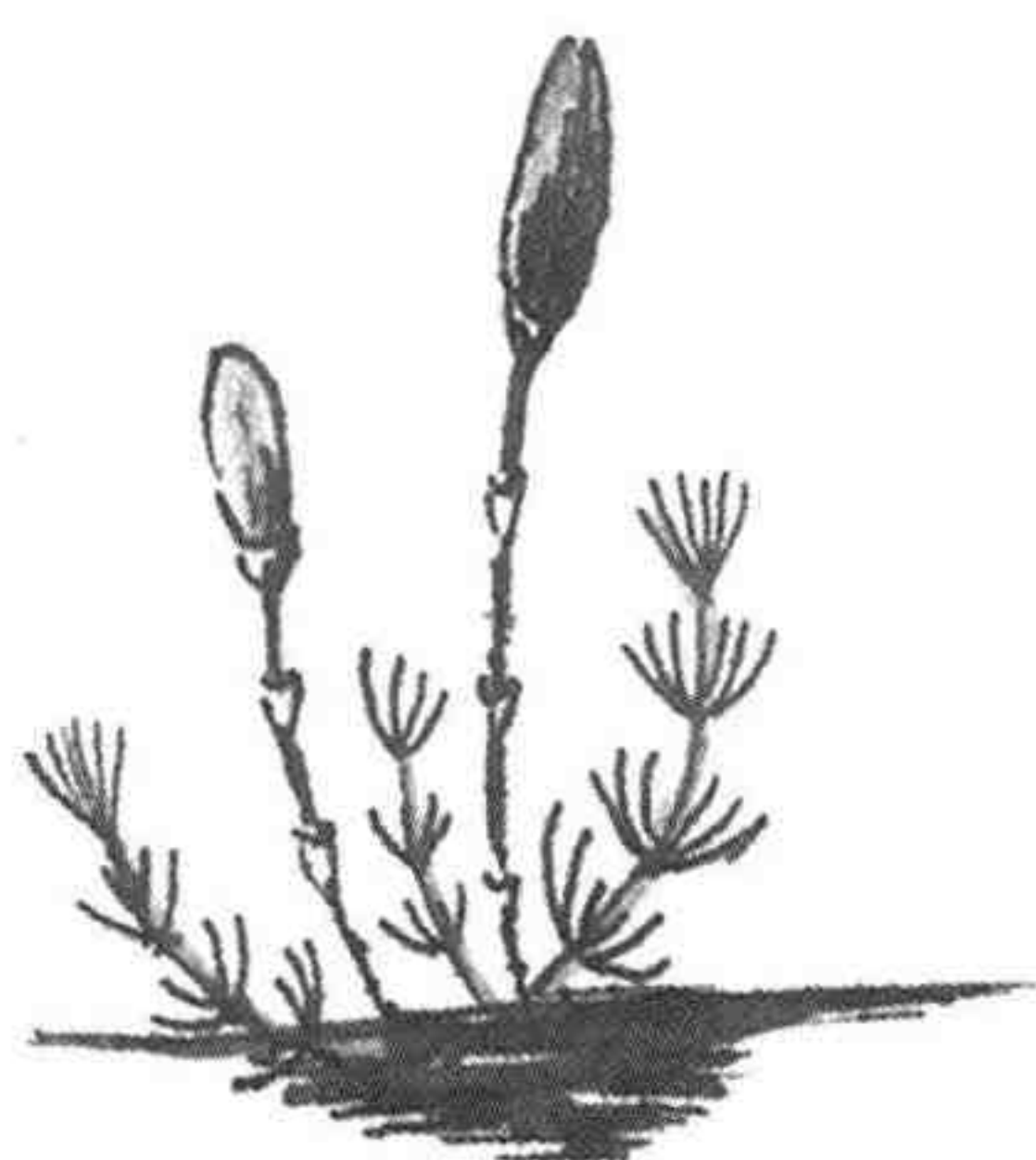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는 저 돌담은 남아 주길 바란 듯이, 텅비우고 가야 하는 길을 가면서도 자기만에 좋은 업이라 생각되는 것은 쉽게 놓지 않으려 한다.

온갖 자취를 다 쓸어버린 뒤에야 보탑은 솟아오른다.

그러기에 수행자는 외로움으로 친한 벗을 삼을 줄 알아야 한다.

不老 덕우

치문/덕우



삼십대 중반에 출가한 나는 과연 나이에 대해서 초연한가?

몇 년전 행자 생활을 했던 절에 주지 스님은 나를 처음 봤을 때 ‘저놈은 분명히 중이 될 놈인데 어디서 무엇하다가 이제 들어 왔다. 어차피 될 거면 빨리 들어오지’ 하셨다지만 출가도 때가 있는 법인데 그전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주지스님 말씀대로 빨리 출가 못한 한심스러움은 가끔 대중생활에서 나타난다.

그날은 결재 이틀전 풀 뽑는 울력을 하던 중이었는데 거의 울력이 끝날 무렵에 탑전에서 울주스님께서 한 손에 호미를 들고 우리 쪽으로 오고 계셨다. 불현듯 행자 교육원에서 바루 공양을 하던 중 허리가 바르지 못하다고 죽비경책을 받은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졸립던 눈에서는 어느새 빛이 나고 있었다. 울주스님께서는 어느새 곁으로 오시더니 “이거 봐라 늙은이야! 이리 와서 이것도 좀 뽑아래이”, 늙은이라 부르셔서 나 말고 다른 스님인 줄 알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둘러보는 너 말이다.” 울주스님은 호미로 나를 가리키고 계셨다. 순간 얼굴은 붉어 졌고, 나란히 풀을 뽑던 도반스님은 얼굴색이 심각하게 변해져 가는 걸 보고는, 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 왔지만 귓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도반 스님이 자기가 대신해서 말씀드려도 되냐고 물어 왔고 난 무심결에 “그렇게 하세요” 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사투리가 심한 도반은 별떡 일어서더니 곁에서 풀을 뽑는

울주스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스님, 실례되는 말씀인데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있는 스님의 범명은 덕우라고 하는데 예 조금 전에 스님께서 늙은이라고 하셨다고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난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이어지는 울주 스님의 말씀은 숙인 고개를 땅에 닿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었나, 아! 그럼 내가 사과하지. 자네의 이마가 벗겨져서 눈이 나쁜 내가 잘못 본 모양이다. 앞으로 자네를 늙지 않는不老라고 불러 주마.”라고 하신 후 큰절 쪽으로 가셨다. 그때 서야 옆에서 같이 울력 하던 스님들도 조금씩 웃기 시작했고 그 도반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 열심히 풀을 뽑았다. 그리고 결재일 방장스님의 범문이 끝나고 오후에 해청당 큰방에서 용상방을 다 쓰신 울주스님께서는 옆에서 종이를 자르고 있던 나에게 커다란 붓글씨로 不老 덕우라고 크게 쓰시고 난 뒤 낙관까지 찍어 주셨다. ‘不老덕우라...’ 그날 밤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講院은 修行道場이고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다.

(3) 教法은 깨닫게하는 因이다.

지운/강주

-目 次-

1. 강원은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修行道場이다.
2. 佛法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3. 깨침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 觀照에 있다.
4. 강원에서의 교법공부로 과연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가?
 - 1) 教法은 因의 힘을 가지고 있다.
 - (1) 법은 깨침의 법칙이다.
 - (2) 법은 수행체계의 원리이다.
 - (3) 教法은 깨닫게하는 因이다.
 - ※ (4) 教法은 自心을 印可하는 道具이다.
 - 2) '공부'라는 말의 意味는?
 - 3) 看經하는 방법
 - 4) 예불, 참회, 정근, 염불 및 모든 습의는 수행이다.
5. 그러므로 講院은 修行道場이며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이다.

(4) 教法은 自心을 印可하는 道具¹⁾이다.

1

우리는 들국화를 한송이의 들국화로 인식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 들국화를 보면 들국화인줄 알고 들국화라고 말을 한다. 이것이 과연 들국화라는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했다고 할 수 있는가. 보통 들국화를 들국화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들국화는 들국화가 아니다. 왜냐하면 들국화를 들국화로 한정지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들국화 자체는 시간적으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도 들국화라는 개념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들국화가 눈앞에 없더라도 들국화를 이야기할때는 들국화가 독립된 실체로 생각된다. 즉 언어문자에 의한 관념과 사고는 사물을 각기 분리된 독립된 개체로 본다.

그러나 독립된 개체는 상징, 관념, 思考와 같은 우리의 내부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영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주변의 실재는 그물망과 같이 상호연관을 가지고 전 우주를 덮고 있고, 고정된 실

1) 일에 쓰이는 연장. 器材. 諸具. 佛道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구.

체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無常性을 가진 계 속되는 율동적 춤인 것이다. 그러므로 들국화는 독립된 들국화가 아니므로 이름이 들국화일 뿐이 다. 즉 들국화라는 이름은 들국화라고 인식한 그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일 뿐이고 원래 지시된 그 들국화는 독립체가 아닌 전 우주와 연관되는 그 물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세계에 대 해서 말씀하실 때 그 세계라는 말에 집착할까 싶 어 세계는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라고 말 씀하신 것이다.

이는 不變하고 固定화된 언어문자에 어떠한 실 체도 진실도 존재하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언어문자에 속아서 안된다. 언어문자는 어디까 지나 사회적인 약속일 뿐이다.

2

《宗鏡錄》‘標宗章’에 다음과 같은 문답이 있 다. 즉 《宗鏡錄》은 우선 標宗이라는 이름에 던 지는 회의적인 질문으로 시작한다. 즉 “내게 종 지를 정립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북 털이나 토 끼 뿔을 찾으라고 하는 격이다.”하신 어느 선덕

의 말씀과 ‘一切法不生’이라는 ‘楞伽經’의 偈頌을 들어서 종지를 세울 필요가 없는데 무슨 까닭으 로 종지를 標하는가?²⁾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기 를, “만약 佛乘을 연구하고자 팔만대장경을 본다면, 보는 것 하나하나가 이치가 녹아져 자기에게 돌아와야 하고 모든 말씀이 그옥이 眞心에 계합 해야 한다. 다만 의미상의 문자에 집착하여 말을 따라 견해를 내지말고 바로 진리를 설하는 언어 문자 밑에 숨어 있는 종지를 찾아 본래의 종지에 계합해 알면 곧 그 자리에서 스승이 없이 알아지는 無師智가 현전하고 天真의 道에 어둡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華嚴經》에서 ‘일체법이 곧 마음의 자 성임을 알면 지혜의 몸을 성취하는 하는 것은 다 른 사람을 말미암아 깨닫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教에 道를 돕는 힘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初心者가 어찌 잠시라도 잊을 수 있겠는가³⁾ 《宗鏡錄》에 두 번째의 물음으로 “宗을 밝히고자 하는데 조사의 뜻이면 합당하지 왜 佛菩薩의 言 教를 이끌어서 指南을 삼아 자신의 눈을 멀게 하 고 祖師의 位에 들지 못하는 文字聖人이 되려고 하는가⁴⁾”고 묻는다.

여기에 대해 답하기를, “배와 뗏목은 물을 건

2) “問 先德云 若教我立宗定旨如龜上覓毛兔邊求角 楞伽經偈云 一切法不生 不應立是宗 何故標此章名” (大正藏 48권 p. 417 中)

3) 《宗鏡錄》卷第一 “若欲研究佛乘披尋寶藏 一一須消歸自己 言言使冥合眞心 但莫執義上之文隨語生見 直須探詮下之旨契會本宗 則無師之智現前 天真之道不昧 如華嚴經云 知一切法即心自性 成就慧身不由他悟 故知教有助道之力 初心安可暫忘” 大正藏 제48권 p. 419 中

4) “問 若欲明宗只合純提祖意 何用兼引諸佛菩薩言教以爲指南 故宗門中云 借蝦爲眼無自己分 只成文字聖人不入祖位” (上同 p. 418 上)

너지 못해 헤매는 사람을 건너 주는 것이고, 길잡이는 길을 잃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대저 일체의 말⁵⁾을 꿰뚫어 圓宗⁶⁾에서 보인 것은, 모두가 문자가 갖고 있는 고정적 틀인, 문자의 성질을 여의는 것⁷⁾이 곧 해탈임을 모르고, 일체 모든 법의 진실한 성품을 미혹해 마음 바깥에서 법을 취하여 문자의 견해를 일으키므로 이제 도리어 문자로써 이 병통을 대치하여 진실을 보이는 것이다.⁸⁾

교법에 대한 이 종경록의 말씀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의 마음을 印可하는 수단으로 ‘배’ 또는 ‘뗏목’, ‘길잡이’인 것으로 언어문자로써 병통을 對治하여 眞實을 보이는 기능이다. 둘째는 문자의 본질이 공하다는 것이고, 셋째는 教와 禪의 관계이다. 이 세가지는 상호관련을 맺고 있다.

첫째, 《宗鏡錄》의 첫 문답에서 문자에 집착하여 견해를 주장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깨달아야 함을 설했다. 教法의 역할이 언어문자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이끄

는 것으로 배나 길 안내자에 비유하고 있는데, 배를 의지하여 강이나 바다를 건너고 길잡이의 안내에 의해서 목적지에 도달 하듯이 배와 길 안내자로서의 교법은 번뇌와 무명의 강을 건너 깨침의 저 언덕이나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因의 힘을 갖는다. 그것은 언어문자에 법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언어문자에 담겨 있는 법은 곧 언어문자 밑에 숨어 있는 宗旨이다. 이는 곧 모든 존재의 본질에 대한 것으로 개인과 사회 국가 나아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는 약이요, 열쇠이다. 구체적으로 그 법은 緣起, 無常, 空, 등의 진리로서 一心之法이라고 총칭할 수 있다.

《宗鏡錄》은 다시 일심지법과 깨달아 들어가는 법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즉, “그러므로 무릇 善知識이라고 일컬 수 있는 것은 法답게 밝아서 걸림이 없어야 하는 것이니 부처님께서 自心을 印可함을 말씀하셨다. 만약 了義一乘 圓教와 더불어 상응하지 않으면 설령 聖果를 증득하여도 究竟이 아니다. 지금 한 두가지 사실을 취하여 이 글을 증명하고자 한다. 홍주의 마조대

5) 言詮; (1)언어. 말. (2)言筌. 言筌; 언어상의 條理. 언어.문자의 말절에만 구애되는 일.

6) 禪의 宗旨를 가리킴.

7) ‘離’는 空을 뜻하는 것으로서 《大智度論》62권에 “衆生離故 般若波羅蜜離 色離故 般若波羅蜜離 乃至佛離故 般若波羅蜜離”(大正藏 25권 p. 499上). 《大智度論》 65권에 “爾時 慧命須菩提白佛言 世尊 無邊波羅蜜 是般若波羅蜜 佛言 如虛空無邊故 世尊 等波羅蜜是般若波羅蜜 佛言 諸法等故 世尊 離波羅蜜是般若波羅蜜 佛言 畢竟空故”(大正藏 25권 p. 518中)라 한데서 ‘離’의 이와 같은 용례를 볼 수 있다. 《宏智禪師廣錄》卷第一 “師在長蘆受請 拈疏示衆云 言語道斷 文字性空”(大正藏 第48卷 p. 1 中)

8) 《宗鏡錄》卷第一 “船筏爲渡迷津之者 導師因引失路之人 凡關一切言詮 於圓宗所示 皆爲未了文字性離即是解脫 迷一切諸法眞實之性向心外取法而起文字見者 今還將文字對治示其眞實” 大正藏 제48권 p. 419 下

사가 이르기를 ‘달마대사는 南天竺國으로부터 와서 大乘一心之法만을 전했으나 능가경으로써 중생의 마음을 밝힌 것은 一心之法을 믿지 않을까 두려워했음이라’고 했다. 능가경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한 마음을 宗으로 삼고, 문 없는 것으로 법의 문으로 삼는다.’고 했으니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서 마음을 宗으로 삼는다’라고 하시는가. 부처님이 마음이라고 말한 것은 ‘卽心卽佛’이다. 지금 말한 것은 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佛語心爲宗’이라 했다.

無門을 法門으로 삼는다는 것은 本性이 空함에 이르러서 다시 하나의 法도 없으니 性자체가 門이다. 性은 相도 없고 門도 없다. 그러므로 ‘無門爲法門’이라 하고 또한 ‘空門’이라 이른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말씀은 心을 말한 것으로 모든 교법은 一心의 法을 언어문자로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 一心之法은 다름이 아닌 우리들의 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교법은 자기자신의 마음을 인정하여 허가(印可)하는 도구로서 자기자신의 마음으로 인도하는 길잡이다. 자기자신의 마음을 회광반조시켜서 자기 마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교법의 기능이다.

그러므로 《宗鏡錄》에 “남양충국사가 이르기

를 ‘禪宗의 法이라는 것은 마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一乘了義을 의지하여야 본원의 心地에 契合(깨달아)하여 점점 서로 전하여 줄이 佛道와 같아지는 것이다.”¹⁰⁾라고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인 一乘了義를 의지하여야만이 자신의 마음을 깨칠 수 있음을 설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교법이 바로 一心을 말하고 이 一心의 법이 자기자신의 마음을 인도하여 一心之法과 자신의 心地가 똑같이 마음으로서 서로 상응함이 깨달음이다. 만일 부처님께서 설한 一心之法의 진리와 자신의 마음이 한치라도 어긋남이 있어 같은 性이 아니라면 상응이 일어나지 않고 깨달음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상응하도록 하는 힘이 일심지법의 교법이므로 길잡이 또는 뗏목으로써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옛 가르침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춘다(古教照心)”¹¹⁾라고 慈覺禪師께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교법은 거울에 비유된다. 곧 자기자신을 있는 그대로 되비추어서 거울 속의 자신과 거울을 보는 자기를 상응시키는 것이다.

이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안다. 이 때 비춘다는 성질이 언어문자를 의지한 법이고, 이 비추게 하는 것은 거울과 같은 것이다. 이와

9) “所以凡稱知識法爾須明佛語印可自心 若不與了義一乘圓教相應 設證聖果亦非究竟 今且錄一二以證斯文 洪州馬祖大師云 達磨大師從南天竺國來 唯傳大乘一心之法以楞伽經印衆生心 恐不信此一心之法 楞伽經云 佛語心爲宗 無門爲法門 何故佛語心爲宗 佛語心者卽心卽佛 今語卽是心語 故云 佛語心爲宗 無門爲法門者 達本性空更無一法 性自是門 性無有相亦無有門 故云無門爲法門 亦名空門”

10) “南陽忠國師云 禪宗法者 應依佛語一乘了義 契取本原心地 轉相傳授與佛道同”

11) 韓國佛教全書 第八冊 p. 8-603 下

같은 비유가 성립하는 것은 그 법이 마음이고, 법인 마음은 자신의 마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교법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마음으로 향해지게 결정되어 있다. 이를 거울에 비유하여 되비쳐본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법의 거울로 자신의 본질을 비쳐보아야만이 존재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법이 모든 존재의 본질을 말하기 때문에 그 본질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즉 자신의 마음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도리어 존재의 뿌리가 된다.

그러므로 종경록에 “일체 모든 법의 진실한 성품을 미혹해 마음 바깥에서 법을 취하여 문자의 견해를 일으키므로 이제 도리어 문자로써 이 병통을 대치하여 진실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설한다. 이는 黃檗스님께서 “이 법이 곧 마음이니 마음 밖에 법이 없고, 이 마음이 곧 법이니 법 밖에 마음이 없다”(此法即心 心外無法 此心即法 法外無心¹²⁾라고 하여 《傳心法要》에서 설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敎에 담긴 마음의 法(敎法)은 미혹의 강과 바다를 건너는 배요, 無生無滅의 열반의 城으로 안내하는 길잡이이고 자기 마음을 印可하는 근거로써 자신을 되비추는 거울인 것이다. 그러기에 ‘교법은 깨닫게 하는 因’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문자의 本質은 空하다.

그런데 교법이 一心이라면 참으로 一心이 모든 존재의 성질이며 본질일까?

교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쳐 보는 것이 존재의 모든 본질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개인과 사회의 모든 병폐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대안이 아닐까? 이 문제는 ‘둘째는 문자의 본질이 공하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

즉, 종경록에 “사람들은 문자가 갖고 있는 고정적 틀인, 문자의 성질을 여의는 것이 곧 해탈임을 알지 못하고, 일체 모든 법의 진실한 성품을 미혹해 마음 바깥에서 법을 취하여 문자의 견해를 일으킨다”라고 한 것과 같이 언어문자의 性質이 空하다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교법의 기능으로 뗏목, 길잡이, 거울의 성격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은 연기법이다. 이 연기법은 모든 존재의 본질이다.

연기법은 無常, 苦, 無我, 空, 眞如, 佛性, 一心 등의 교법과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다르지 않다. 敎證으로는 《十地經》의 第六現前地에 “三界는 오직 이 마음뿐이다. 十二支緣起도 이 마음

12) “禪門撮要” p. 211 鏡虛惺牛 編輯 佛母山聖住寺 發行

13) “三界唯是心 十二有支依心有” 大正藏第十卷 p. 555上. 《六十卷華嚴經》“三界虛妄但是心作 十二緣分 是皆依心” 大正藏卷九 p. 558下. 《八十卷華嚴經》“三界所有 唯是一心 如來於此 分別演說 十二有支 皆依一心” 大正藏卷十 p. 194上. 《十住經》卷第三“三界虛妄 但是心作 如來說 所有十二因緣分 是皆依心” 大正藏卷十 p. 514下. 《十地經論》卷第八“十二因緣分 皆依一心” 大正藏卷二十六 p. 166上.

에 의하여 있다.”¹³⁾라고 하고 또 《大般涅槃經》의 ‘師子吼菩薩品’에는 “무릇 마음이 있는 者は 無上正覺을 성취한다.

그 이유는 모든 중생에게 佛性이 있기 때문이다.”¹⁴⁾ 또 “十二因緣을 佛性이라 하고, 佛性은 곧 第一義空이며, 第一義空은 中道라고 한다. 中道라는 것은 곧 佛이라고 말하며, 佛이란 涅槃이라고 한다.”¹⁵⁾라고 하여 十二緣起가 一心이고, 佛性이고, 中道이며, 第一義空이며 同時에 一心을 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경록의 ‘一切諸法眞實之性’은 곧 마음을 말한다. 마음은 또 緣起임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언어 문자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언어문자는 고정된 틀을 의미한다. 언어문자에 의지하면 하나의 고정된 틀밖에 모른다. 그것은 부분적이다. 예를 들어 찻잔이라는 사물을 찻잔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그 인식은 찻잔에 고정되어 한정된다. 이 찻잔과 다른 사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만다. 말하자면 찻잔이 우리에게 찻잔이라고 불러 달라고 한 적도 없을 뿐만아니라 찻잔이 영원하지 않다는데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찻잔이 영원하다면 그 찻잔이라고 부르는 이름도 거짓이 아니고 진실하다.

그러나 찻잔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서지고 없어진다. 비록 없어졌다고 해도 그 찻잔이라는 이름은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찻잔이라는 사물은 무상하나 이름은 有常하므로 하나의 고정된 틀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문자에 의해 판단되는 사물들은 개개가 고정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어서 인식하여도 고정된 그것만을 알게 되는 닫힌 인식이 되어 버린다. 모든 다툼과 서로간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구성된 세계를 서로가 단절된 닫혀 있는 중생계라고 한다.

그러나 찻잔이라는 이름과 문자의 屬性이 실체가 없는 無性으로서 空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하나의 찻잔을 통하여 전 우주가 상호관계 속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얹이 중요하다. 그것은 지혜이고 覺이다.

문자의 틀속에서 邪見이 생긴다.

상호관계의 만남이란 개개와 전체, 전체와 개개, 개개와 箇箇의 만남(緣起)이다.

이 만남에는 有情과 有情, 無情과 無情, 有情과 無情, 無情과 有情이고 이 만남을 마음은 相依性, 즉 상호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 얹에 의해서 相依性은 파악된다. 바꾸어서 말한다면 그 만남의 속성이 無常, 즉 변화인 만큼, 전 찰나와 후 찰나가 서로 다르다. 이 다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얹이 일어난다.

변화라는 것은 존재의 본질이 相互 緣起하고

14) “凡有心者定當得成阿 多羅三 三菩提 以是義故 我常宣說 一切衆生悉有佛性” 大正藏 卷十二 p. 524 下.

15) “十二因緣名爲佛性 佛性者即第一義空 第一義空名爲中道 中道者即名爲佛 佛者名爲涅槃” 上同 p. 524中.

無性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無常하고 차별의 현상이 展開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마음도 이러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변화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斷見과 常見에 빠진다. 즉, 변화가 없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없다는 ‘無’의 생각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보이는 현상이 있으므로 ‘無’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은 斷見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영원하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변한다. 그러므로 영원하다는 것은 常見에 벗어나지 못한 邪見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斷常二見으로써 나타난 존재는 마음이 분별하여 알아차릴 도리가 없다. 때문에 마음도 없다는 것이 되는 이상한 이야기로 흐르게 된다. 즉, 모든 현상이 변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현상계가 독립된 실체로 보이는 것이나 無로 보는 것은 언어문자의 고정된 틀 속에서 생각하고 추리하는 데서 생기는 잘못된 견해이다.

그러므로 모든 언어문자를 고정화된 틀로서 보면 이는 또한 마음밖에 모든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법밖에 마음이 있다는 식이 되어 버린다. 이것은 당연히 論外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아는 知의 이야기는 대상을 인식하는 우리 자신을 排除해서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앎의 내용은 緣起이다.

이 앎을 통하여 구성되는 세계는 달라진다. 언어문자를 근거한 인식은 서로가 단절된 세계를 형성한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고정화된 틀의 성

격을 가진 언어문자는 지시한 그것을 서로 독립된 것으로 보고 그것만을 안다. 이것은 無知이고 無明의 앎이다. 그러나 언어문자에 의지하면서도 언어문자의 속성이 공함을 잘 알아 그 것에 속지 않고 인식할 때 차별된 세계가 그 본질이 조건(緣)을 따라 이루어지는 세계로서 실체가 없으므로 無性이고 空性임을 안다. 이 아는 마음은 平等智이고 無差別의 無性 속에서 연출되는 변화속의 형상은 순간순간 틀이 바뀐다. 이것이 重重 無盡法界이다. 고정된 틀은 실상도 법계연기도 아니다. 이것을 아는 마음은 差別智 그대로이다. 이러한 지혜의 특성은 모든 것을 고정시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열린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남(연기)이 흐르기 때문이다. 열린 마음의 흐름은 부처이고 본질이다. 닫힌 마음의 흐름은 중생이다.

그런데 이렇게 아는 마음도 만남의 관계인 緣起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마음은 대상을 고정시켜 보지 않는다. 그 변화하는 있는 그대로 다 안다. 어떻게 변해도 그 변화에 따라 안다. 바로 이 인식하여 아는 앎의 내용이 연기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이 사실은 앎과 연기는 서로 상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앎과 緣起는 상응한다.

만일 앎과 연기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마음은 모든 존재하는 현상을 인식하여도, 즉 연기하는 현상이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앎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상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연기하고 있는 사실을 안다. 대상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알기는 알지만 존재현상의 본질이 연기이고 공임을 모를 뿐이다.

이는 언어문자에 매여서 보기 때문에 마음이 迷하여 이러한 진리를 모를 뿐이지 이 모르는 앎도 주객의 상대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대상을 잘못 인식하더라도 앎과 대상이 연기하기 때문에 앎도 연기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을 流轉緣起 또는 染心緣起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해의 차원에서도 분명하지만 수행을 통해서 체득이 되고 증명이 되는 것이므로 수행의 영역이다.

이와 반대로 앎이 연기한다는 것과 연기가 앎이라는 것을 바르게 아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연기는 전체이고 그것을 아는 마음은 전체를 아는 반야의 마음이다. 고로 고정된 실체로서 독립된 것으로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아서 그 앎은 다른 것을 모르는 無明이고 無知이고 다른 것과 단혀 있는 마음이다. 그러나 아는 마음이 상호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상호관계가 앎이라는 것이고 또한 앎의 관계임을 말한다. 관계는 변화이다. 단혀지 않았으므로 변화도 수시로 바뀌는 다양한 변화이다. 그러므로 앎도 그 변화에 따라 단혀지 않고 아는 것이므로 그 앎은 변화이고 상호관계이고 연기인 것이다.

안다는 현상은 主客이 相對 할 때 그 사이에서 생긴다. 그런데 주객의 상대는 연기현상이다. 여기에서 생기는 아는 현상은 주객을 緣하여 생긴

緣已生法이다. 즉 緣에 의하여 생긴 현상이라는 의미이다.

이럴진대 앎은 연기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반대로 연기는 아는 마음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緣起法이 有佛이든 無佛이든 관계 없이 무조건적 흐름으로 常住하는 것이라면 이 아는 마음도 常住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연기의 만남이라는 性에 의해서 마음의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緣起, 空性 이것이 마음의 場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이렇게 마음의 場에 의해서 緣起의 相互依存이라는 眞實性이 드러난다. 연기와 마음의 관계가 마음이 먼저냐 緣起(만남)가 먼저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과 같다. 이 둘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다. 마음과 연기가 만남으로 마음도 연기이고 연기도 마음이다. 고로 마음밖에 연기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 이런 까닭에 마음이 연기의 장이라면 연기도 마음의 장이 아닐 수 없다.

一切唯心造

그러므로 마음의 場에서 主客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마음에 파장이 생기는데 그것이 앎이다. 주객의 만남이 마음의 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비로소 만남의 본질을 알기 때문이다. 단혀진 마음은 만남의 본질을 분리시켜 보지만 열린 마음은 만남(緣起)의 본질을 공으로 본다. 존재의 본질이 공이라는 것을 사무쳐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 밖에 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연기하는 법의 영역에 마음도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마음도 만남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연기에 의해서 비로소 깨어난다. 그러므로 법 밖에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無性이고 緣起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아는 마음에 의해서 알려지고 조정됨으로 모든 것은 마음 따라 달라지는 마음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華嚴經》에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라고 한 것이다. 이제 마음이 연기이고 연기가 마음이고 모든 존재의 뿌리이고 본질임을 알 수 있다. 교법은 이러한 존재의 본질이고 뿌리인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치와 본질을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적이 문제도 문자가空하다는 사실을 전제한 것이다. 언어문자의 벽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모든 존재의 뿌리인 마음을 깨칠 수 있는 영역이 나타나고 마음의 진리가 현현한다. 물론 언어문자의 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문자의 속성이空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고, 교육이나 모든 학문의 영역을 멀리 벗어난 수행의 차원임을 말한다. 오로지 수행을 통하여 마음을 직접 관했을 때 비로소 진실의 세계에 도달함을 말한다. 이것은 곧 教法이 자기의 마음을 印可하는 禪목이나 杖잡이의 역할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教에서 禪으로 들어가는 捨教入禪의 길을 보여준다.

작은 정성 큰 기쁨!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웃의 도움이 없으면 자립할 수 없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창 응석을 부리고 꿈을 키울 나이에 가장이 되어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생활비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소년소녀 가정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더라도 성의껏 보내주시면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무게를 덜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으로 쓰이게 하겠습니다.

우체국 온라인 : 503490-0043410-11(예금주 : 소년소녀)
 연락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번지 (541-930)
 송광사 강원 내 노휴스님
 ☎(0661) 755- 5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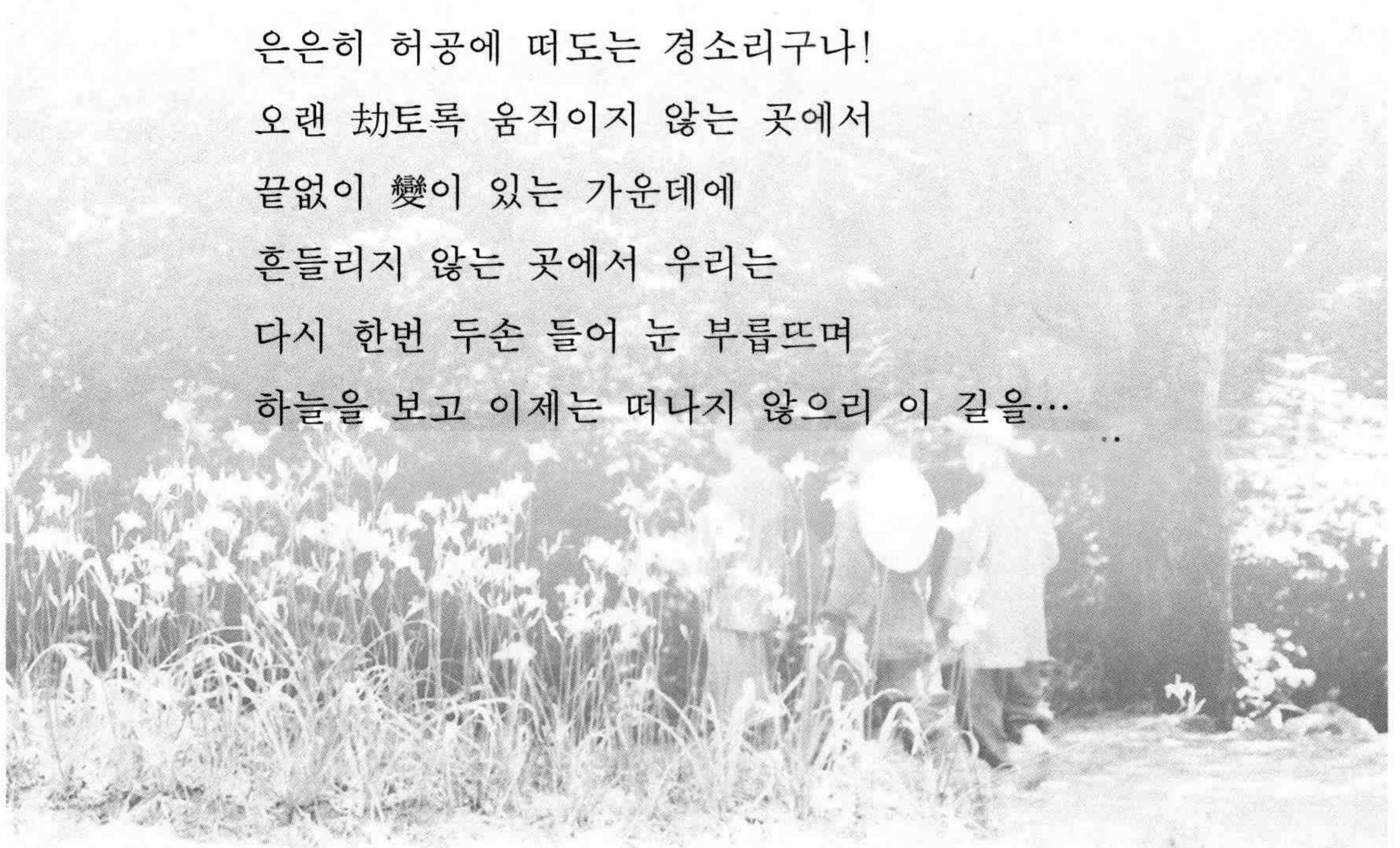
주위에 도와야 할 소년소녀가장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새벽禮佛 가면서

치문/선문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시간의 벼랑으로 나가떨어지고
우리는 이슬이 사뿐사뿐 내리는 법당 가는 길에서,
삶의 고뇌를 한번 더 잊지 않고 있는가!
그 속에서의 고독을 위로하기엔 너무 이르지만,
우리는 다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고요한 곳에서의 내디딤을 시작하려 한다.

비오는 날 법당에서
기와장 타고 흐르는 빗물소리 속에
은은히 허공에 떠도는 경소리구나!
오랜 劫토록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끝없이 變이 있는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두손 들어 눈 부릅뜨며
하늘을 보고 이제는 떠나지 않으리 이 길을...







어린모종의 발원

모든 이들의 보호아래 자라나
순탄하지 않을 저 넓은 땅에 새로 자리잡아

넓고 긴 생을 보내야 할 이 곳
비, 바람, 가뭄 모든 것을 헤쳐내야만 할 날들

모두를 뒤로하고 들이 서로 의지해 섰다.
어떤 환경에서도 굳게 자리

이 몸 좋은 열매 맺어
다른 이들을 위해 꼭 좋은 회향하리

사진 : 사교/한운 · 글 : 치문/대용

보여주시기 위한 붓다의 일생



1. 머리말

부처님(붓다)을 이해하는 시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역사적인 붓다이다. 다시 말해 2천 6백여년 전에 태어나셔서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인간으로서의 붓다이다. 두 번째가 신앙적인 의미이다. 모든 중생들에게 인간의 완성된 모습과 완성을 이루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었다는 시각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시각을 완전히 분리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어느 한 쪽만을 취할 때는 부처님에 대한 완전한 인식은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시각으로만 붓다를 봤을 때에는 외부의 형상에만 치우쳐 내면의 본질을 잃을 것이며, 또한 신앙적으로만 봐도 역시 객관성의 결여로 미신화 내지 독선적인 모습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붓다의 일생을 정리하는 데

에는 이러한 두 가지 시각이 동시에 정리 되어야 된다고 본다.

2. 세속에서의 생활

부처님의 일생을 대체로 여덟 가지로 정리하여 팔상(八相)이라고 한다. 이는 일생 동안의 굵직한 일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팔상을 중심으로 해서 네 단원으로 나누고자 한다. 첫째 세속에서의 생활과, 둘째 출가수도하여 성도 하시는 모습, 셋째로 교화하시는 모습, 그리고 넷째로 열반하시는 모습이다.

붓다께서는 2614년 전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신다. 아버지는 샤카족의 정반왕이며,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다. 조그만 도시국가인 것으로 추정되는 카필라국의 태자로 탄생한다.

당시에는 부족단위의 도시국가 형태였으며, 그

러한 국가들 가운데서도 작은 국가인 것으로 보인다. 완전 독립된 국가는 아니었던 것 같으며 주위의 강대국이었던 코살라국에 종속되어 샤카족은 아마도 아리안계의 민족이었던 것 같다. 샤카족 내부에는 사성(四姓)의 계급제도가 없었던 것 같다. 이것이 후대 계급제도의 타파를 주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하는 학자들도 많다. 아마도 이 종족은 전사(戰士)출신의 왕족이었던 것 같다.

정반왕은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가 어느 날 마야부인의 꿈에 도솔천으로부터 상아가 6개가 난 흰 코끼리가 품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서 태자를 잉태했다. 여기에서 흰 코끼리는 인도인에게 있어서 상서로움과 최고의 길조를 상징한다.

중국민족이 용을 최상의 길조로, 그리고 한민족이 해와 달을 길조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열달 후 출산이 임박해지자 친정인 데바다하로 가던 도중 룸비니라는 동산에서 출산을 하게 된다. 약 2백여년 후에 아쇼카왕이 이 지역을 순례하다가 탑과 석주(石柱)를 세웠다. 1896년 이 석주가 발견되어 비문을 해독함으로써 현재 주민들이 룸민데이(Rummindei)라고 부르는 이 지역이 부처님 탄생지로 룸비니인 것으로 밝혀졌다.

탄생하실 때의 상황이 「아함경」 「강신품(降神品)」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열 달이 차고 태자의 몸이 이루어지고 4월 8일이 되었는데, 부인은 나아가서 유람하며 유마수 아래를 지나다가 못꽃이 피고 샛별이 빛날 때에 나뭇가지를 잡았더니, 문득 오른쪽 겨드랑이로부터 탄생하여 땅에 떨어지면서 일곱 보를 걸

어가 손을 들고 말하기를 ‘하늘 아래 나만이 홀로 높다. 이 세상이 모두 괴로우므로 나는 장차 편안하게 하리라’라고 선언했다.”여기서 오른쪽 겨드랑이로 탄생하셨다는 것은 인도 전체의 사성계급 가운데 전사(戰士)인 왕족이었음을 말해 준다. 왕족은 범신(梵神)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탄생한다는 일반적인 표현방법일 뿐이다.

출생 후의 주행칠보나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고 한 것이 실제 상황이나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는 실제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 후대에 불타께서 설법하시면서 탄생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생명의 존귀성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그리고 그 인류의 고통을 구하기 위한 붓다의 삶을 나타낸 표현일 것이다.

석존의 출생연대는 이론이 대단히 분분하다. 왜냐하면 경전에 기록된 내용들은 대체로 연대의 기록이 없을 뿐더러, 인도의 고대사 자체가 연대 기록 개념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통일된 바로는 올해로 불기 2540년을 쓰는데, 이는 불멸연대이므로 석존 세수 80을 더하여 2620년 전 4월 8일에 탄생했다고 본다.

태어난 후 석존의 어머니 마야왕비는 7일 만에 세상을 떠난다. 아마도 출산의 산고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석존은 후에 어머니에 대해서 설법하면서 붓다의 탄생이라는 엄청난 일을 한 마야부인은 천상에 태어났다고 하고 있어, 석존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엿볼 수 있다.

그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동생이었던 고타미(Mahapajapati-Gotami, 大愛道 : 나중에 출가

하여 승단의 첫 비구니가 됨)가 당시 풍습에 따라 정반왕과 결혼하여 태자를 양육하였다.

아시타 선인이 태자를 보고 태자의 장래는 두 가지 길밖에 없음을 예언한다.

그 하나는 붓다가 되어 혼란의 세계를 구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되어 이 세상을 무력 없이 덕행으로 통일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이러한 예언은 당시 인도인들의 염원이었을 것이다. 태어난 태자의 이름은 싯달타였다. 일체의 성(一切義成)이라 하여 ‘모든 뜻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싯달타의 양육은 그의 이모이며 양모인 고타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경전에 의하면 그는 어려서 무술과 일반 학문을 모두 통달한다. 스승들이 와서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로 영민 하였다. 태자는 전사(戰士)계급인 왕족으로서의 길을 착실히 걸었던 것 같다.

그러나 태자는 항상 여느 사람들과는 달리 죽음에 대한 인식이 빨랐던 것 같다. 이러한 사건은 당시 왕가에서 농업을 권장하는 행사인 농경제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 행사에 참여했던 어린 태자는 번민한다. 벌레들을 새들이 잡아먹고, 새는 다시 큰 새가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에 태자는 몹시 괴로워했다. 이는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약소국으로 주변 국가의 위협, 그리고 전쟁의 와중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고민이라 생각할 때 그 삶의 자체가 우리에게 보

여주시기 위한 연극의 한 막이라고 대승불교에서는 말한다.

태자의 생활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거의 없었다. 물질적인 풍요와 태자로서의 지휘는 충분히 세속적인 풍족을 누리게 했다. 그 예로 인도의 계절은 비오는 우기와, 무더운 시기, 가을 등의 세 시기이므로 태자를 위하여 삼시전(三時殿)을 지어 살게 하는 등 그 배려는 극진 했다. 이것은 아마도 정반왕이 태자에 대한 큰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작은 나라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태자에 대한 바램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태자는 형이상학적인 관심을 가질 때마다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무희와 향락을 제공했으나, 태자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관심거리가 출세간(出世間)적인 것들에 끌렸다.

부왕은 이러한 태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결혼을 시켰다. 아쇼다라(Yasodhara)와의 사이에서 라후라(R hula)를 두었다. 라후라라는 이름도 그의 출가생각 때문에 나온 이름이다. 장애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아들을 낳았다는 전갈을 받은 태자는 ‘출가에 장애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그 첫마디가 ‘라후라’라고 해서 이름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출가에 대한 생각과 세속적인 갈등을 출세간적으로 풀려고 했던 태자가 출가를 결심하게 된 드라마틱한 사건이 사문유관인 것이다.

3. 수행과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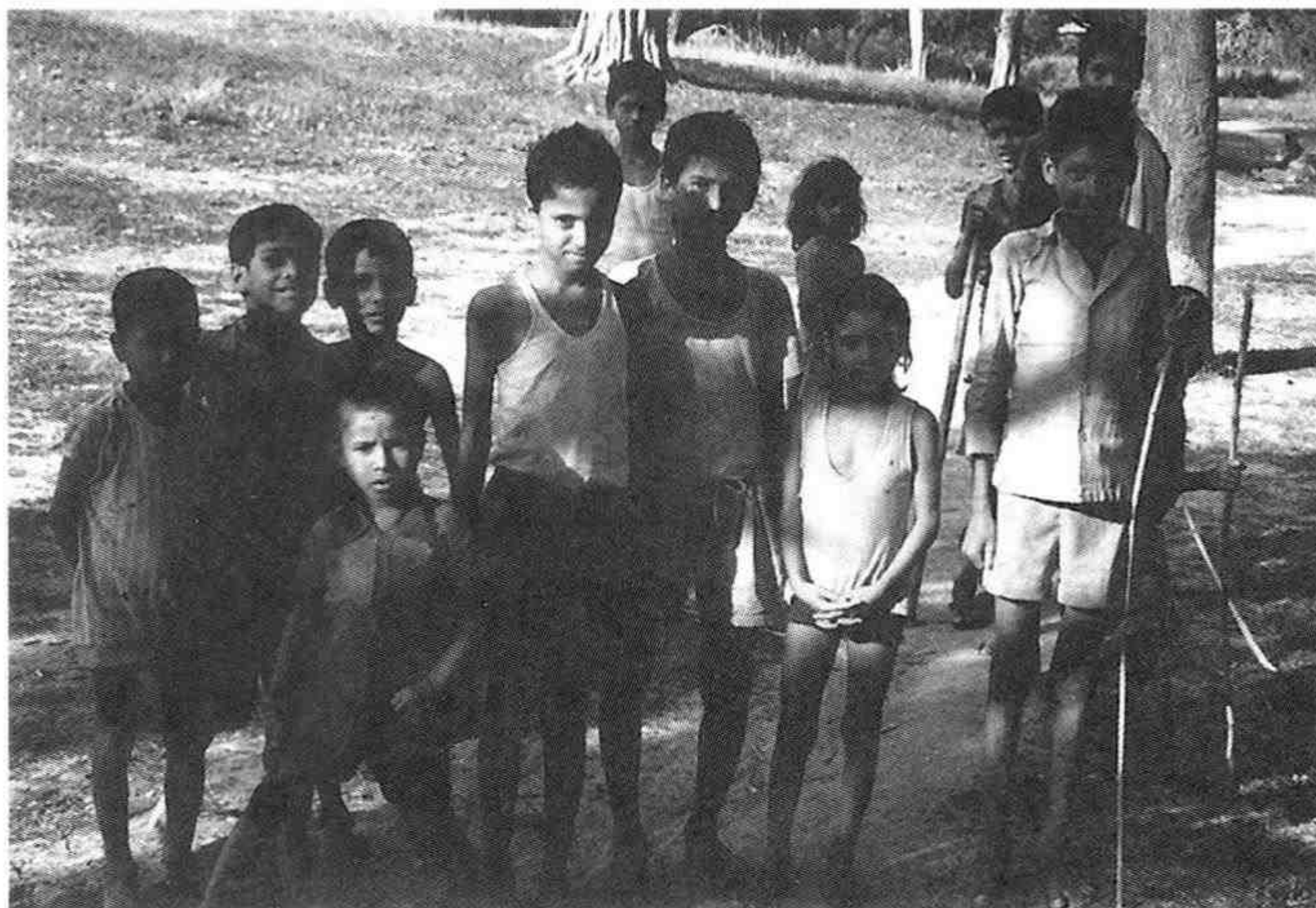
태자의 최대 관심사는 인간의 고통은 나고, 늙

고, 병들고, 죽는 고통, 그리고 좋은 사람과 헤어지고, 싫은 사람과 만나는 것, 마음대로 얻을 수 없는 것, 이 몸의 유지 등이었다. 태자의 고뇌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로 일관되었다.

이러한 생각이 사문유관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 「아함경」에 의하면 태자가 명상에 잠겨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 부왕이 수레를 내어 성 밖을 나가 구경하게 했으나 태자는 오히려 성 밖에서 인간의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수행자(修行者)의 모습을 보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밤중에 야쇼다라와 라후라를 작별하고 평소에 타고 다니던 말을 타고 시종을 데리고 성문을 나선다. 성을 나가 출가를 한다는 것은 중생들이 기존적으로 살아왔던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출세간적으로의 전환이며, 기존의 관념체계로부터의 탈피를 뜻한다.

성 밖으로 나와 말과 시종을 돌려보낼 때 호화로운 옷과 장식들을 같이 돌려 보내고 삭발을 하였다. 출가자의 본분으로 돌아선 것이다. 삭발하고 출가한 것은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많이 유행하던 사회관습 중 하나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시절 공부하는 시기와 가정을 이루어 사는 시기, 그리고 출가하여 숲으로 들어가는 시기, 마지막 열반을 위해서 인더스 강변으로 향하는 시기 등의 인생여로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출가라는 것이 특수한 것이 아니라 사회일



반에 잘 알려진 공부하기 위한 유학의 관념으로 인식 되었다.

29세에 삭발하고 가사를 걸치고 유행자가 되어 남쪽의 신흥국가인 마가다국을 향했다. 마가다국에는 이러한 종교가들이 많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이다. 석존이 왕사성에서 걸식하고 있을 때 빔바사라왕이 자기의 신하로 삼고자 하여 하인을 시켜 출가를 포기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석존은 당시 유명한 신흥종교가인 아라라카라마 밑에서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이라는 선정을 배웠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윗타카라마뫼타에게서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을 배워 도달했다. 그러나 선정상태에서는 고요했으나 깨고 나면 다시 고뇌의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것은 석존이 원하던 고통해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고차원적인 현실도피일 뿐이지 적극적인 해결방법이 아님을 알고 혼자 수행을 시작하였다. 마가다국의 우루벨라의 세나마을을 흐르는 네란자라강 부근이 수행에 적합하다고 생각

하고 여기서 고행을 행하였다. 석존의 고행은 당시 고행주의의 고행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의 수행법은 수정주의(修定主義)의 방법이지만 네란자라강에서의 정진은 고행이었다. 고행 방법을 예로 들면 호흡을 차츰차츰 줄여 결국에는 차단하게 되는데, 귀와 눈으로 호흡이 될 정도로 지식선(止息禪)도 행했으며, 차츰차츰 절식을 해서 결국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 뼈마디가 가늘어지고 피부가 탄력을 잃었으며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의 심한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고행은 당시 고행주의자들이 행했던 수행으로 고행을 행하여 자기의 욕망을 극복함으로써 범천의 세계에 나게 된다는 것인데, 석존은 실제로 고행을 행하니 오히려 고통이 더 일어났다. 생에 대한 애착은 죽음에 이룰수록 강해지고 재가의 욕락생활에 대한 집착도 끊어지지 않았다.

이 고행주의가 쓸데없는 것임을 깨닫고 니란의 강가로 내려가 목욕을 하시고 나오다가 쓰러지게 된다. 그 모습을 본 양치는 소녀 수자타의 보살핌으로 유미죽을 받아 잡수시고 기력을 회복하게 된다.

이 고행주의를 포기하게 된 동기를, 후에 석존은 과거 어린시절 농경제를 행할 때 고요히 숲속에 앉아 초선(初禪)에 든 것을 생각하고 혼자 조용히 명상에 잠길 것을 생각했다고 한다.

이때 고행주의와 수정주의를 모두 포기한 모습을 본, 국왕이 보낸 다섯명의 시종들(초전법륜 이후 이들이 첫 승가를 이루었으며 교진여 등 다섯비구이다)은 태자가 타락했다고 단정하고 태자의 곁을 떠났다.

당시의 사회통념이 고행, 수정주의가 정진의 모든 것처럼 인식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대단히 강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태자는 기력을 회복하여 근처의 숲속 아슈밧타나무(보리수라고 후에 불려졌으며, 원래는 무화과 나무의 일종이다) 아래에 풀(길상초)을 깔고 조용히 선정에 들었다. 21일 동안 선정에 들었다가 12월 8일 새벽 셋별을 보고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전한다.

석존이 깨달음을 얻은 것을 남방불교에서는 4-5월 보름이었다고 하고, 대승불교권에서는 12월 8일이라고 하고 있다. 29세에 출가하여 6년(만으로 6년이며 실제로는 7년이다)동안 정진하여 35세에 성도 하였다.

석존은 45년 동안 교화하시다 80세수를 일기로 열반하셨다. 일설에는 50년 동안 교화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는 19세에 출가하여 30세에 성도했다는 설이다.

성도 하신 후 석존은 자기의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인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과거처럼 선정에서 깨어나면 다시 고통의 세계가 전개 되는지를 또는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항상된 마음은 변화가 없었다.

석존의 성도는 옛날부터 항마성도(降魔成道)라고 하는데, 이는 악마를 항복시키고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을 확실히 알고 이루었다는 말이다.

악마라는 것은 마음의 번민과 고뇌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뇌와 번민이 일체 사라지고 평안의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광사의 여름

치문/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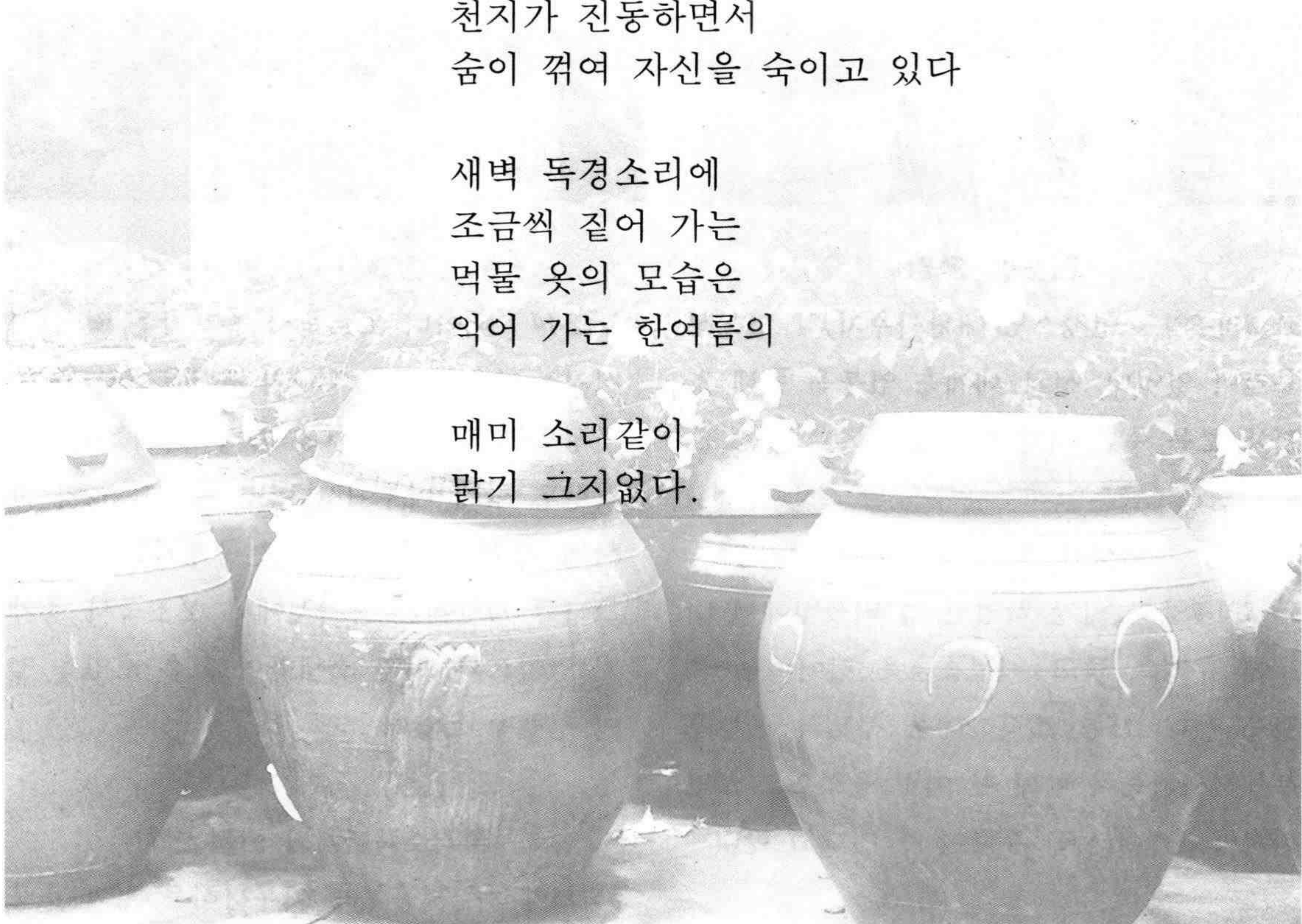
바람에서 오수를 즐기던
먹물 옷이 차가운 계곡물에
벼락같이 깨이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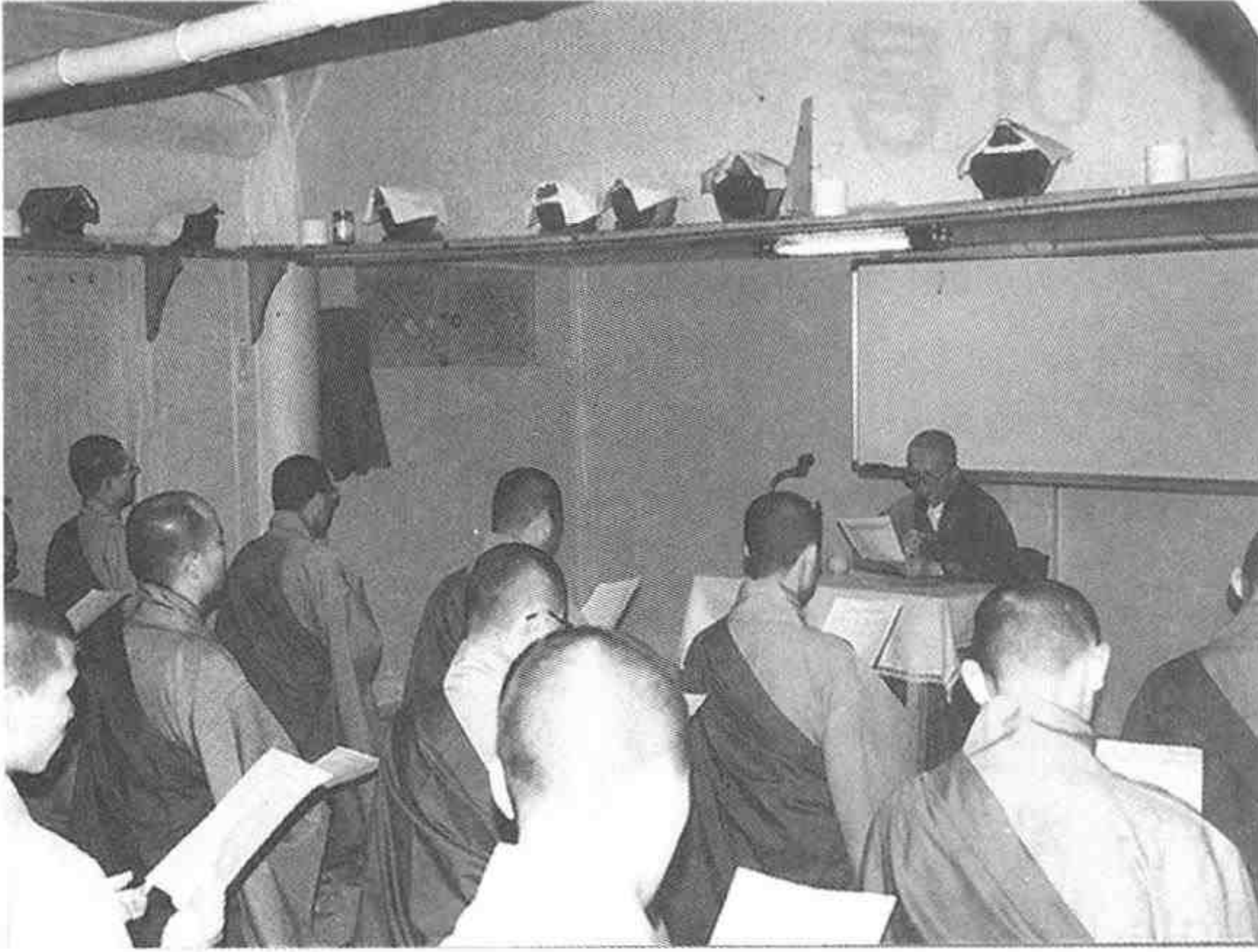
거목 가지에
어울리게 춤추고

이내
천지가 진동하면서
숨이 꺾여 자신을 숙이고 있다

새벽 독경소리에
조금씩 짙어 가는
먹물 옷의 모습은
익어 가는 한여름의

매미 소리같이
맑기 그지없다.





염불선 특강

5월8일-9일 : 현장스님(대원사주지)의 염불선 특강이 있었다. 선의 세계를 염불을 통해 조명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버섯목 종균 넣기 울력

5월8일-9일 : 2일간 화엄전 옆 버섯밭에서 나무에 구멍을 뚫고 버섯종균을 집어넣는 울력을 했다. 15톤 트럭 2대분 정도의 분량을 부목처사님들과 함께 한 이번 울력으로 10년 가까이 표고버섯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한다.

송광사 3월 불사

5/12-14 : 해마다 보조국사 종재일을 맞아 치러지는 송광사 3월 불사가 올해도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가사불사 1차 회향도 함께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12일 보살계 수계식, 13일에는 전국불일회 총회가 그리고 14일에는 국사전에서 보조국사 종재가 있었으며, 학인 스님들이 고루 소임을 맡아 진행을 도왔다.

정기소풍 및 봄 산철 방학

5월15일 : 산철공부를 마무리하는 정기 소풍



을 지리산내 실상사, 화엄사, 연곡사, 천은사 등의 사찰순례를 다녀왔으며, 16일부터 하안거 준비를 위한 방학에 들어갔다.

하안거 무장무애 참회기도

병자년 하안거에 들어가기 전 3일간의 무장 무애 참회기도가 해청당 큰방에서 진행되었다. 모두들 더운 날씨 속에서도 공부에 순임하기를 기도해 본다.

우화각 밀 계곡 청소

6월 5일 : 송광사 일주문을 들어서면 막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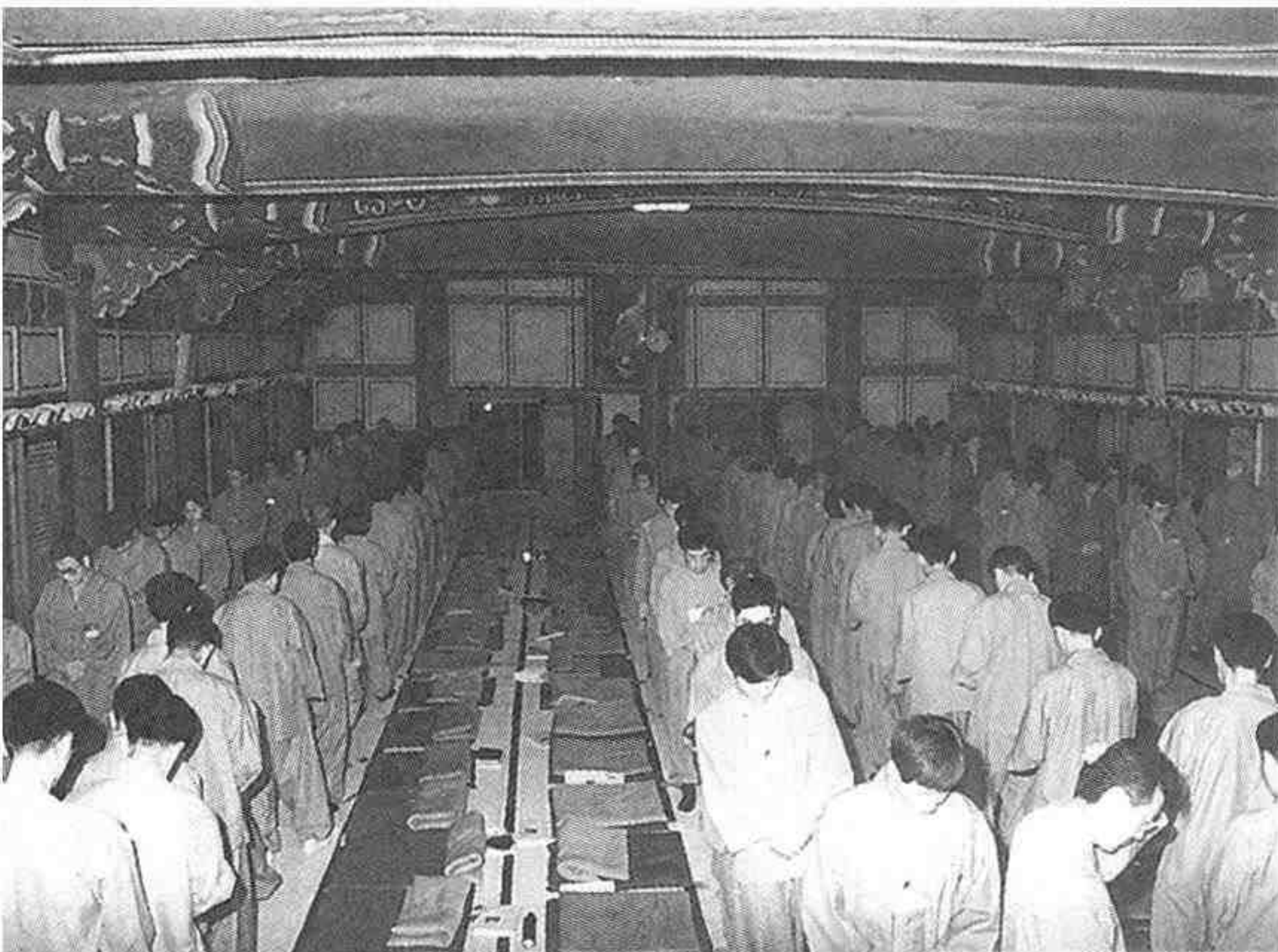
되는 우화각 밑의 계곡에 쌓였던 노폐물 및 쓰레기 등 퇴적물을 깨끗이 청소했다.

들깨모종 울력

6월 19일 : 들깨 모종 심기 울력을 했다. 모든 대중이 힘을 보태니 그 넓던 밭도 어느새 모두 들깨밭이 되었는데, 모종 후 바로 비가 내려 풍성한 수확이 기대된다.

감자밭 울력

7월3일 : 선방 및 강원 등 사중 사부대중이 함께 감자밭 울력을 했다.



금강경 특강

7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번어사의 무비 스님을 모시고 금강경 특강이 있었다. 학인들이 평소 쉽게 넘겼던 구절까지 조목조목 의미를 짚어 주셨고 이번 강의를 통해 금강경의 진수를 보여주셨다. 강의를 듣는 동안 환희심과 신심을 발하게 했으며,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더욱 정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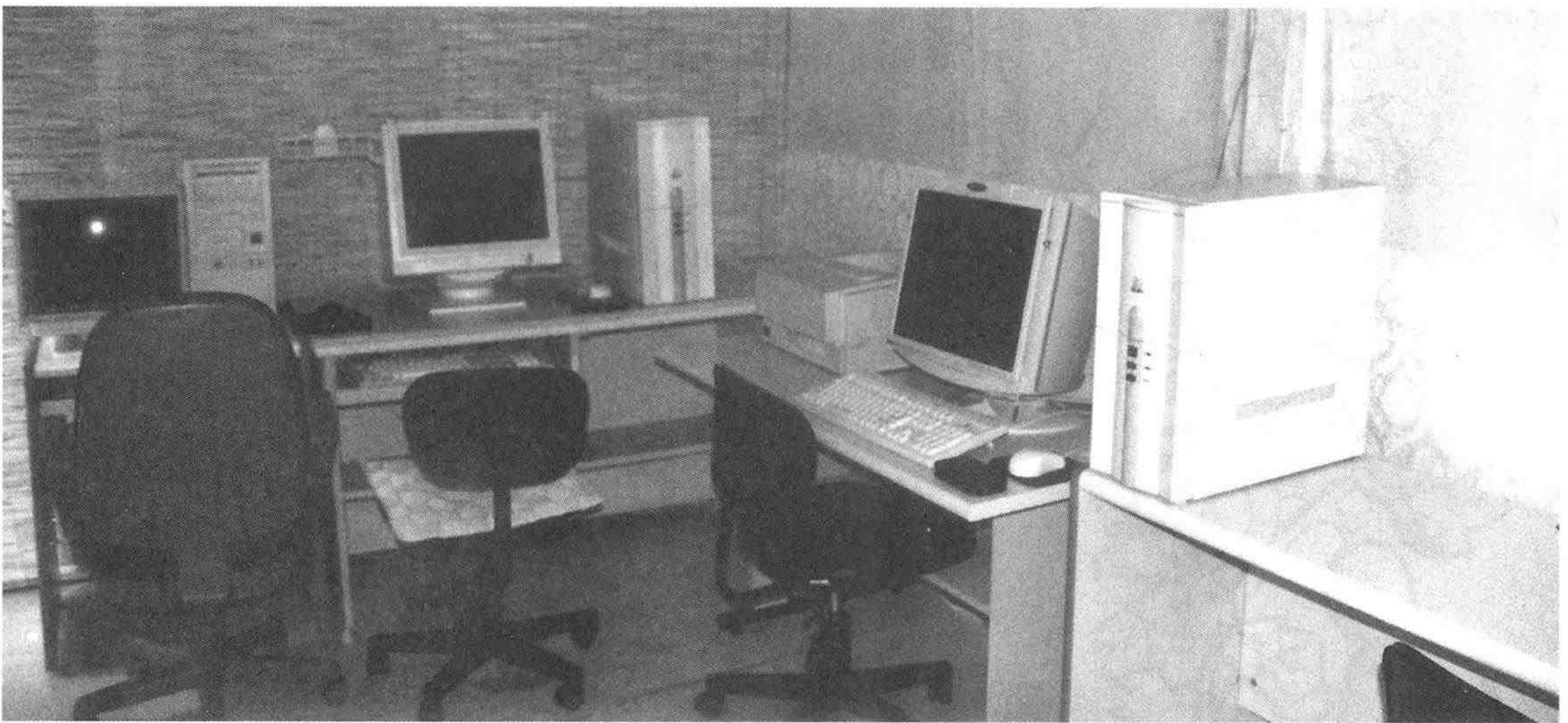
송광사 여름 수련회

7차에 걸쳐 실시 되는 불기2540년 여름수련회가 7월7일부터 시작되었다. 모집정원의 3

배나 넘어설 만큼 열기를 보인 이번 수련회에는 경반스님들이 습의사로 도움을 주고 있다.

반결제 소풍

7월 18일 : 하얀거 반결제를 맞이하여 조계산 산행을 다녀왔다. 조계산을 넘어 선암사까지 다녀온 소풍에서 그 동안 정진에만 몰두했던 마음을 풀고, 다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서기증

광주 월추동 정광사에서 150여권의 도서를 보내 왔다. 경전 및 교양도서 등의 기증된 책들은 모두 학인스님들이 공부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강원 도서관에 진열 하였다.

컴퓨터 보시

익명의 보시자들로부터 450여만원의 컴퓨터 보시금이 들어와 지난 6월 24일 펜티엄급 컴퓨터 2대를 구입했다. 이 번 구입된 컴퓨터는 전산실 및 해청당 편집실에 한 대씩 나누어 설치하여 해청당 편집 및 학인들이 컴퓨터를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입방소감

치문/보일



이나 생기 있던 하심의 6개월, 그 짧고도 길었던 행자시절도 벌써 아득하고, 강원에 들어온 지도 두달이 넘어서고 있다.

행자 교육을 수료하고 송광사에 왔을 땐 이미 치문반에는 두 분이 입방해 계셨다.

큰방에 들어와 보니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지만, 가장 힘겨운 것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하루 세 번의 발우공양 시간이었다. 하체가 남들에 비해 유난히 짧아서 반가부좌로 허리를 바로 세우고 앉아 있는 그 시간은 가히 극기 훈련을 방불케 하였고, 거기다가 교육원에서 배웠던 습의들이 아직 익질 않아 옆에 스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그저 따라 하기에 급급했다. 초기엔 치문반에 방부 들인 스님이 몇 분 안되는 지라, 객스님이라도 오시면 방부 들일 스님인지, 방부를 드린다면 치문반이 확실한지 잔뜩 관심을 갖고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다.

먼저 방부를 들인 대용스님 같은 경우, 송광사가 제법 큰 강원이라 듣고 막상 와서 보니, 치문반엔 아무도 없고 후원에

서 대기 중이던 일법스님 한 분 뿐이라, 저으기 실망하여 다른 강원으로 갈까 하고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했고, 계속 스님들이 늘면서 지대방은 점점 좁아져서, 요즘은 간경이 끝나고 휴식시간이 되면, 지대방의 좋은 자리목은 재빠른(?) 스님들이 먼저 차지하고, 그러

대중이 많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며, 그때마다 대중스님들은 그 문제에 대해 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시지만 ...

지도 못하는 몇 분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신다.

생활이 차츰 익숙해질 무렵 소임도 생기고 각종 습의와 울력으로 바쁘게 되었다.

대중이 많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며, 그때마다 대중스님들은 그 문제에 대해 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시지만, 단지 그 답은 자신의 수행과정에서 철저히 체득되어

한 여름의 소나기가 지나간 자리엔 풀들이 그 푸름을 자랑하고 있고, 그 자태만큼

더위가 더할수록 종고루 스님들의 연습장으로 향하는 발길이 잦다. 아마 연습도 연습이지만 흠뻑 땀 흘린 후에 계곡에서 떡 감는 즐거움도 크리라.

야 할 문제이기도, 아직은 중물이 덜든 치문반 스님들에겐 조금은 힘에 겨운지 뼈저터거리기도 한다.

내게는 옥두와 다각 소임이 주어졌는데 여기 저기서 들어오는 차담을 상급반부터 인원에 비례하게끔 신속히 분배해야 하며, 또한 지대방의 청소도 해야 한다.

지대방의 쓰레기통은 매일 같이 몸살을 앓는다. 치위도 치위도 언제나 가득히 차 있다. 마치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의 문제를 실험이라도 하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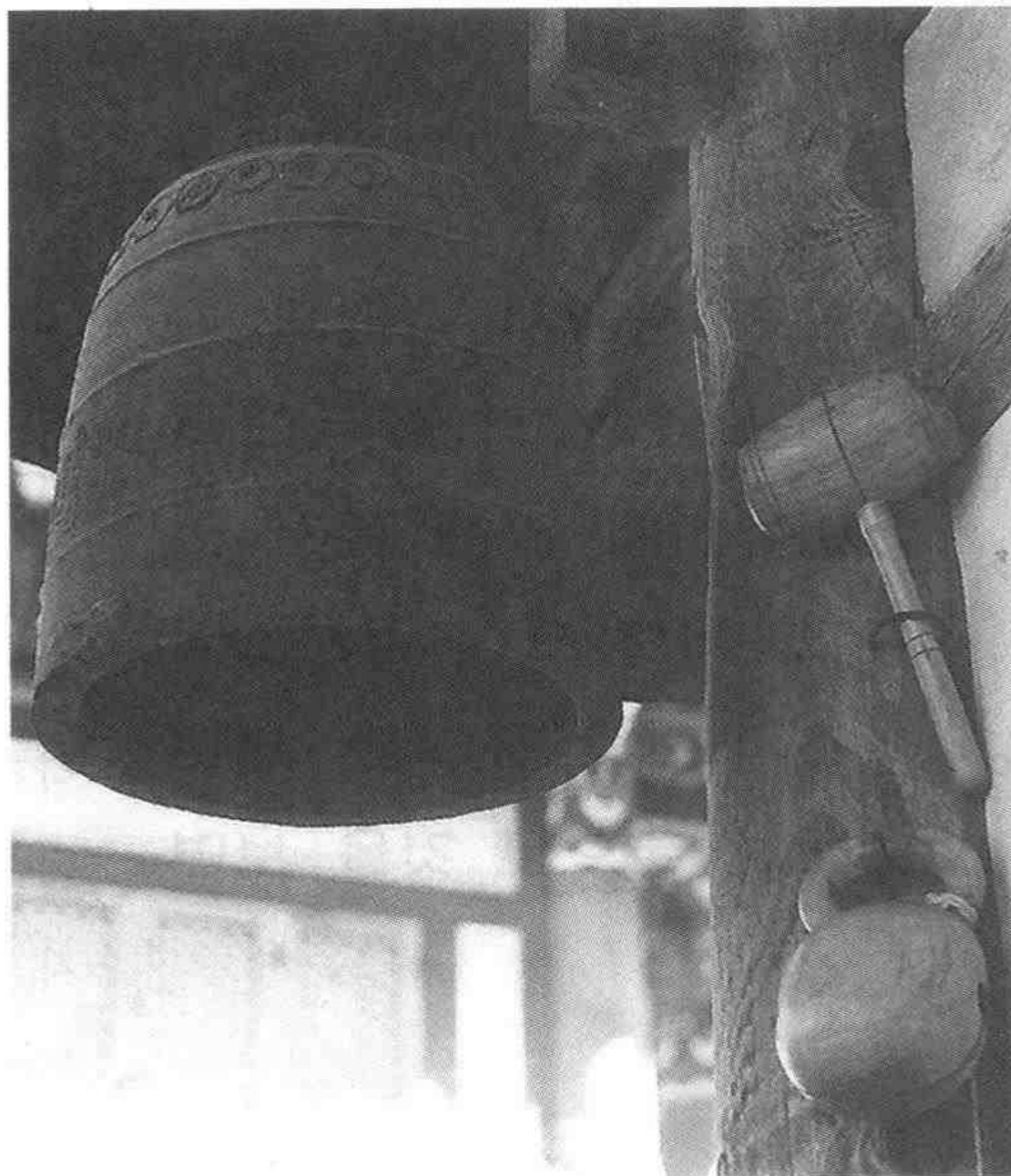
요즘은 공양습의로 한참 바쁘다.

옆에서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쉬울 것 같은데, 막상해보면 왜 그렇게 힘들고 안되는지... 공양을 보기 좋게 뜨려면 떡밥이 되고, 어설피게 뜨면 밥알이 흩어져 버리곤 한다. 조

만간 큰 방 진지를 해야 한다며,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윗반 스님들의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한 종고루 사물습의도 일부 시험을 쳐 합격하신 스님들은, 틈만 나면 계곡에 임시로

치문반스님의 실습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더위가 더할수록 종고루 스님들의 연습장으로 향하는 발길이 잦다. 아마 연습도 연습이지만 흠뻑 땀 흘린 후에 계곡에서 떡 감는 즐거움도 크리라.



가끔은 소임과 울력 습의로 바쁘고 힘이 들어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사소한 일로 짜증이 나고 신경까지 날카로워지기도 한다. 이것도 수행이라 생각하여 이겨내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어른 스님 말씀으로는 “이런 저런 일들을 겪고 또 헤쳐 나가는 것이 중물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출가자라면 아무리 힘든

만들어 놓은 연습장으로 가서서 북채와 씨름을 하신다. 그리고 아침, 저녁 예불 때 종고루에서 가끔 실습도 하는데, 법당으로 향하다 북소리가 좀 어설피다 싶어 돌아보면, 예외 없이

역경계라도 회광반조하여 녹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후에 청구습의를 한단다. 반스님들의 안색이 썩 밝지가 않다. 나도... 아니지, 회광반조, 회광반조, 회광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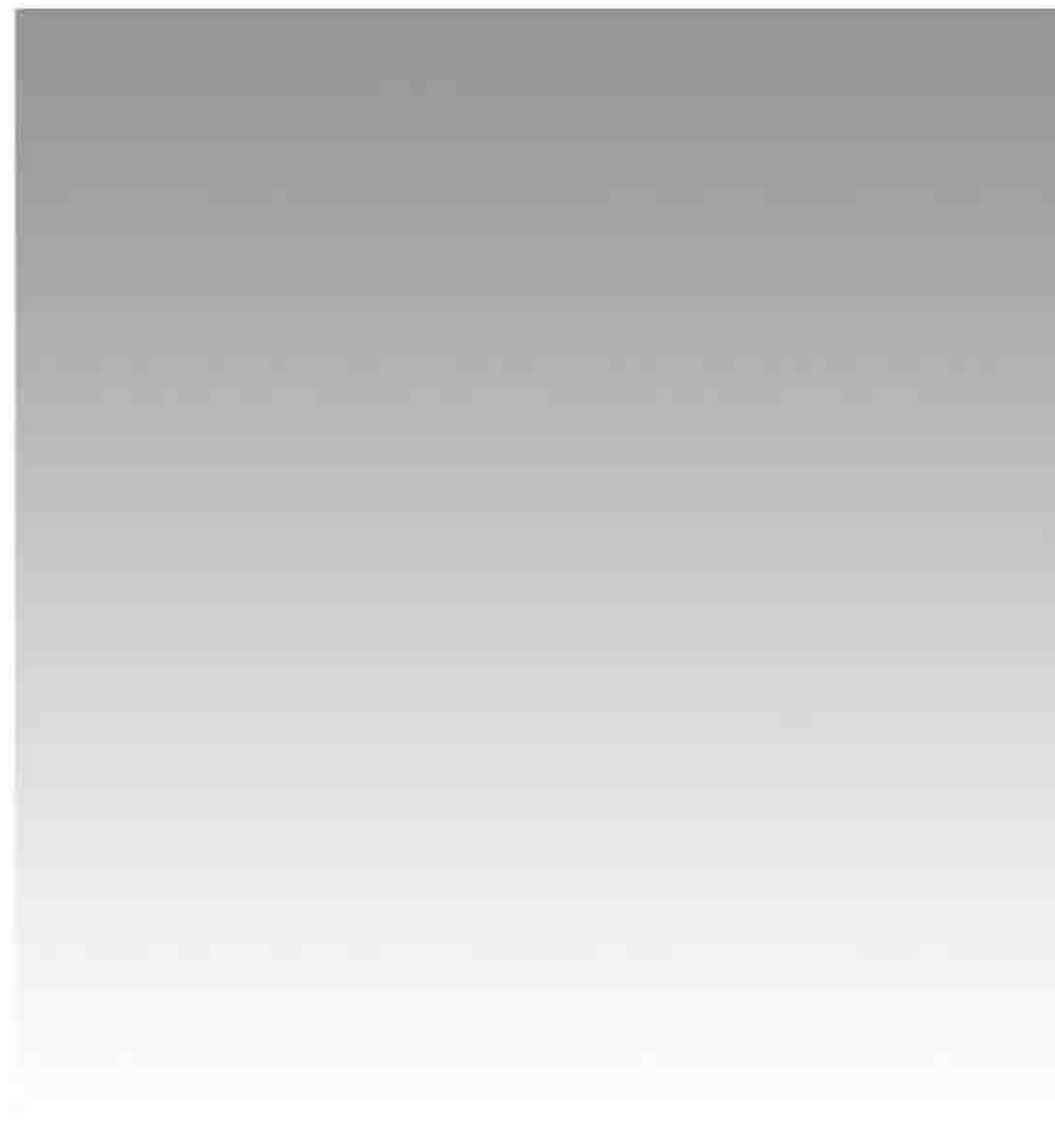
컴퓨터와 불교

사집/범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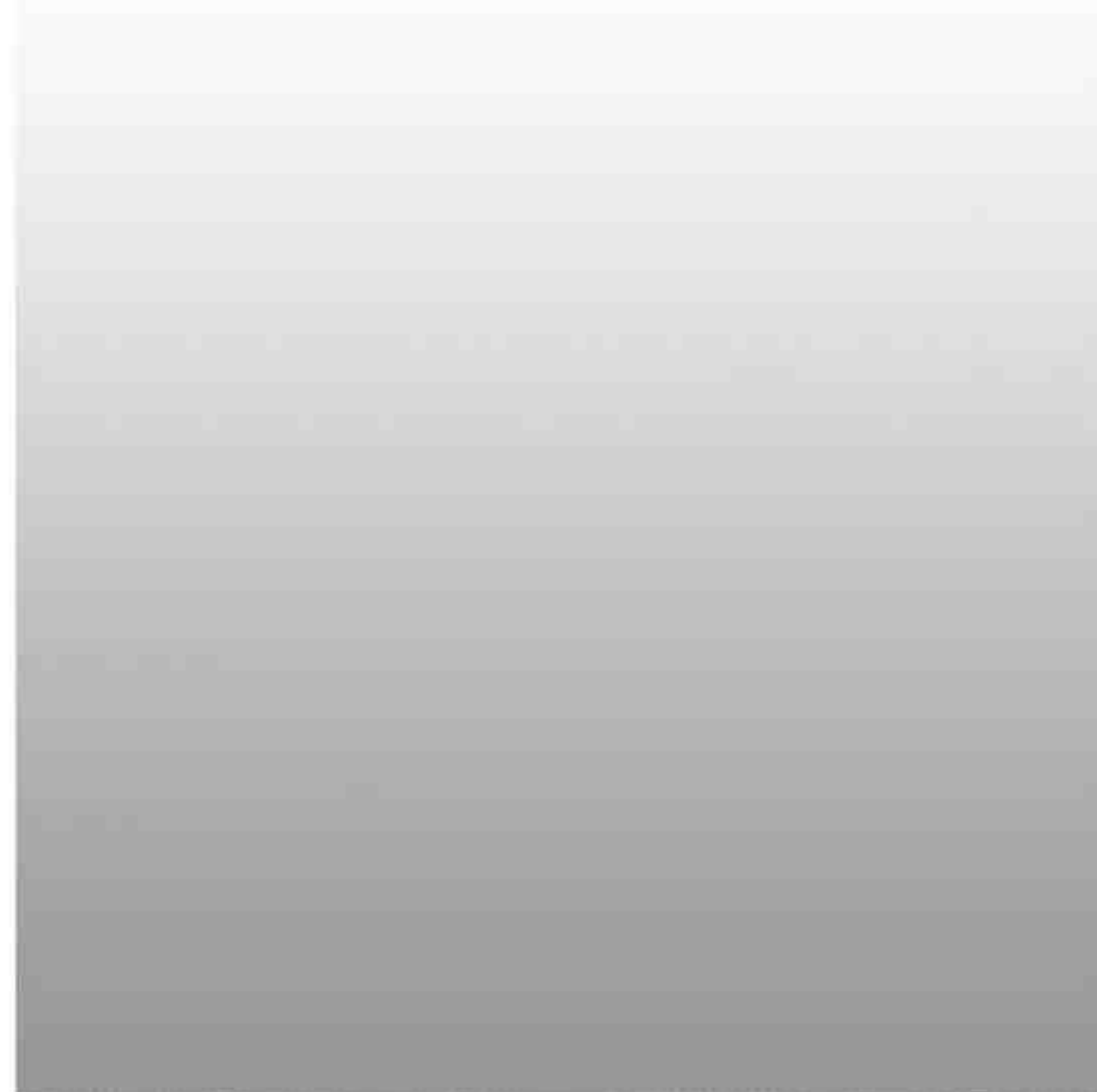
절 집에 무슨 컴퓨터가 필요하기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의아해 할 수도 있겠지만, 심심산골 송광사에서든 여러해 전부터 컴퓨터를 들여놓기 시작했다.

지금은 비록 조그만 방이지만 전산실도 있고 과거 전통적인 용상방에는 있지도 않던 전산이란 소임도 생겨났다.

지난 해제방학에는 은사스님이 계신 절에 가 있었다. 모처럼 봐서 반가우셨던지 스님께서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고 하셨다. 출가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가지를 궁리한 끝에 떠오른 것이 노트북 컴퓨터였다. 왜 하필이면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까? 그 중에서도 노트북 컴퓨터를. 가뜩이나 복잡한 세상을 뒤로하고 출가한 마당에 그 골치 아픈 컴퓨터가 필요했던데는 나름의 이유가



요즘 송광사 강원의 강사스님치고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분이 없고, 새로 오신 강사스님조차도 컴퓨터를 새로 들여 놓으신 것을 보면 ...



있었다.

첫째, 절집에서도 컴퓨터는 꼭 필요한 도구가 되어 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불과 공양, 습의, 간경. 그 중에서도 하나를 들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진 경전을 배우는 일일 것이다.

이런 경우, 과거에는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각종서적을 일일이 떠들어 봐야 했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보았던 자료라도 그것을 다시 찾으려면 똑같은 수고를 반복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교학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다양한 서적들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데 그것들을 당장 보관하려면 부피도 커질 뿐만 아니라 분실의 우려도 염려가 된다.

그래서인지 요즘 송광사강원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컴퓨터는 현대에 맞는 방안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해 수행에 필요 없다고 그저 배척만 할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의 강사스님치고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분이 없고, 새로 오신 강사스님조차도 컴퓨터를 새로 들여놓으신 것을 보면 교학을 하는데는 없어서는 안될 도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해인사 장경연구소에서는 팔만대장경 경판의 내용을 모두 CD로 제작하였고 아울러 앞으로 색인작업까지도 할 예정이라고 하니 컴퓨터를 이용한 경전열람이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즘 포교활동을 하거나 사중소임을 살려고 하면 법문자료 정리와 사찰관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도구가 문명의 이기인 컴퓨터이다.

특히 요즘은 컴퓨터 통신의 저변확대로 인하여 각 통신동호회도 많은 활성화가 되었는데 그 안에 불교동호회도 생겨 교리에 관한 각종자료들을 볼 수 있으며, 회원들끼리 의견도

교환할 수 있을 뿐더러 법회까지 모시는 실정이고 보면, 앞으로는 통신을 통한 불교정보교류의 영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컴퓨터 보급대수가 500만대를 넘어섰고 이중에 통신인구는 100만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정보이용자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아울러 고등학교에서도 인터넷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의 이용이 갈수록 확대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컴퓨터는 현대에 맞는 방안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해 수행에 필요 없다고 그저 배척만 할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학인 시절 부처님 말씀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열심히 배워 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지금껏 중언부언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절=컴퓨터’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은 깨져야 한다. 사회는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방편 또한 그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스님들이 공부하는 데에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며 포교나 사중 소임을 볼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방편설과 부합되는 것이 아닐까? ‘오늘부터 컴퓨터를 배우자’고 제안한다.

그 누구보다 앞선 방편을 이용할 줄 아는, 앞서가는 승가의 지혜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다.

진각곡사 혜심

치문/응진

人生天地間
사람이 이 천지간에 태어나
百骸九竅都相似
백개의 뼈와 아홉 개의 구멍은 모두 같은데
或貧或富或貴賤
어떤 이는 가난하고 어떤 이는 부하며
혹은 귀하거나 천하며
或妍或醜緣何事
혹은 아름답거나 추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曾聞造物本無私
일찍이 들으니 조물주는 사사로운 정이 없는데
乃知其虛語耳
이제야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네
虎有爪兮不得翹
호랑이는 발톱을 지녔으나 날개는 없고
牛有角兮不得齒
소는 뿔이 있으나 이빨은 없는데
蚊有何功 既翹而又
모기는 무슨 공덕이 있어 날개도 지니고
또한 부리도 있는가!
鶴脰長兮鳧脰短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다리는 짧고
鳥足二兮獸足四
나는 새들은 발이 둘이며 기는 짐승은 넷이로다.

魚巧於水拙於陸

고기는 물에서 자유로우나
땅에서는 그러하지 못하고

獺能於陸又能水

수달은 땅에서도 물에서도 능하다네
龍蛇龜鶴數千年

용 거북이 학은 천년을 사는데
朝慕當死

하루살이는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 그 삶을 다하네

俱生一世中 胡奈千般萬般異

모두 한세상을 살며 어찌하여
천가지 만가지로 다른가

不知然而然

그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모르나 그러하고
夫誰使之使

누가 그렇게 만들었던 말인가
上以問於天

위로는 하늘에 물어보고

下以難於地

아래로는 땅에게 따졌으나

天地默不言

하늘은 고요히 말이 없으니

與雖論此理

누구와 더불어 이 이치를 논하라

胸中積孤憤

가슴엔 외로움과 울분이 쌓이고

日長月長鎖骨髓

긴긴 세월 속에 골수만 녹아드네

長夜漫漫何時曉

이 밤 어느 때야 밝으려나

頻向書窓啼不已

창문을 향하여 울음을 그칠 수 없네

對天地答

萬別千差事

천자 만별의 일들은

皆從妄想生

모두 망상에서 생기나니

若離此分別

만약 이런 분별을 여의면

何物不齊平

무엇인들 평등하지 않으리요

과거의 늑늑한 옛길을 더듬다보면 빈 소주병과 더불어
내곁을 맴돌며 앉아대던 정채 모를 불안과 번민들이
다시금 살아나곤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존재 자체가 지닌 본래의 고통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혹은 무심하게

혹은 진지하게 고민하였을 문제를 진각국사 혜심은

15세의 어린 나이에 이렇듯 명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친절하게도 혜심은 대승기신론의

“一切諸法 唯依妄念而有差別 若離妄念 則無一切境界之相”

이라는 구절을 차용해 시로써, 제시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沙彌十戒로 본 여러경전의 律思想

사교/종지

목 차(目次)

1. 시작하는 말
2. 사미십계(沙彌十戒)의 성립(成立)
3. 사미율의(沙彌十戒)에 대한 여러경전의 비교
4. 마치는 말

<p>1. 시작하는 말</p> <p>강원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율주스님을 시봉하고 있는데 어른을 모신다는 것이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다. 천성이 차분하지가 못해서 아직도 가끔 실수를 하지만 그나마 지금까지 율주스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은사스님께 배워 두었던 사미율의 덕택이 아</p>	<p>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인지 비록 행자때 배우는 말씀이지만 남들보다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자주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다.</p> <p>지금도 방학이 되어서 은사스님을 시봉하러 갈 때면 “사미율의부터 똑똑히 봐야 한다. 중노릇 함부로 하는게 아니다”라고 경책(警責)하시곤 한다.</p>	<p>지금부터 사미십계의 각 항목들을 열거하면서 각각 여러경들의 내용들을 덧붙이려고 한다.</p> <p>2. 사미십계(沙彌十戒)의 성립(成立)</p> <p>사미는 범어(梵語)¹로써 우리 말로는 ‘번뇌를 쉬고 자비를 실천한다’는 말이며 ‘부지런히</p>
--	--	---

1. 사미율의 P24 : 고대 인도의 상류층에서 사용하던 문자와 말이다.

힘쓴다' '열반(涅槃)을 구한다'는 말도 된다. 곧 예비스님을 일컫는 말이다. 십계(十戒)는 열 가지 계율로 사미, 사미니가 반드시 지녀야 할 계목이다.

사미율의에 보면 「부처님 가르침에 출가한 이는 오하(五夏)²까지는 계율을 익히고 오하가 지나서 교(敎)도 배우고 선(禪)도 닦는다」라고 하셨다. 불교 최초의 사미는 라홀라다. 라홀라는 부처님께서 싯다르타 왕자(王子)시절에 낳은 친아들이다. 부처님께서 성도(成道)하신지 5년째 되던 해에 고향을 방문하게 되고 이때 라홀라가 출가하게 된다. 이로써 불교 최초의 사미가 되었다. 이때 라홀라마저 출가한 것을 안 부왕(父王)께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15세 이상으로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만 출가를 할 수 있다고 율장에 명시하셨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명하시어 사미십계를 설하게 하고 라홀라의 아사리³

가 되게 하셨다.

3. 사미십계(沙彌十戒)에 대한 여러경전의 비교

①생명을 죽이지 말라(不殺生)사미율의에 「위로는 부처님, 성인, 스님, 부모로부터 아래로는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보잘 것 없는 곤충들까지 생명 있는 것은 내 손으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말라」고 하셨다.

다른 종교(宗敎)에서는 사람의 목숨만을 강조했으나 부처님께서 모든 미물, 곤충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하는 자비사상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계율이다.

또한 범망경(梵網經)에는 「죽이는 직접요인이나 간접요인까지도 경계했으며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自殺)까지」도 경계하셨다. 대지도론(大智度論)에는 살생의 죄로 10가지를 말씀하신 가운데 「사미는 모든 망념을 쉬고 자비심

으로 근본을 삼아야 하니, 그런 까닭으로 불살생 계를 제일 앞에 둔다」라고 하셨고 습보경(習報經)에는 「살생하면 사취(四趣)⁴의 고통을 받는다」고 하셨다.

능엄경(楞嚴經)에는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은 그 마음에 살생할 생각이 없으면 나고 죽음이 계속되는 것을 따르지 않으리라」고 하셨고 도구경(度拘經)의 백정의 대한 이야기와 현우경계(賢愚經偈)에 장난 삼아 살생한 후 과보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②훔치지 말라(不偷盜)

사미율의에서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여 가지거나, 세금을 안내거나, 차비를 안내는 것도 모두 훔치는 행위이다」라고 경계하셨으며 또 능엄경에서는 「네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함이거늘 훔칠 마음을 없애지 못하면 번뇌에서 벗어나질 못할 것이며

2. 불교학 대사전 P33 : 5년이라는 말로서 여름 안거를 다섯 번 지내야 된다.

3. 불교학 대사전 P1009 : 제자를 가르치고 행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스승.

4. 불교학대사전 P49 : 지옥, 아귀, 축생, 수라

반드시 사도(邪道)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셨으며 어떤 경(經)에는 「어떤 사미가 대중공양 할 과일 일곱 개를 훔쳐먹고 어떤 사미는 떡 두 개를 훔쳐먹고는 모두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므로 차라리 손을 끊을 지언정 옳지 못한 재물을 가지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그리고 능엄경에서는「내가 비구를 시켜서 법대로 걸식하게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탐심을 버리고 보리의 도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훔치는 죄가 무거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③음행하지 말라(不淫行)

사미율의에 「재가 신도의 오계에는 사음(邪淫:비정상적인 성행위)만을 못하게 하셨지만 출가한 이의 십계에는 온갖 음행을 끊어라」하셨으며 범망경에는 「짐승의 암컷이나 천녀나 여자귀신과 음행하지 말며 음행에 가까운 짓까지도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셨다.

화엄경에는 「사음한 죄로 또한 삼악도(지옥, 아귀, 축생)에 떨어지고 설사 사람 몸을 받아도 그 과보는 없애기 어렵다. 다만 화탕 지옥을 보라.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생에 파계한 사람들이다.」라고 하셨다.

또한 능엄경에서는 「음행을 4바라이⁵에서 제일 으뜸으로 삼았으며 부처님께서서는 만약 음욕을 끊지 않고서 선정을 닦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모래를 썰서 밥을 짓는 것과 같으니 백천 만겁을 지내더라도 다만 뜨거운 모래다」라고 하셨으니 음욕의 무서운 결과를 잘 나타내셨으며, 어떤 경에서는 「부정한 행동은 몸을 축내고 혼백이 놀라서 목숨을 일찍 잃으며 죽어서도 악도에 떨어져 어리석고 거칠은 과보를 받는다」고 하였다. 실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젊은 신세대를 소위 성개방 세대라고도 칭한다. 말 그대로 성(性)문화가 개방되어 문란해

졌음을 말한다.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는 동성연애 또는 에이즈(AIDS)등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벌써 오래 전 이야기며 가끔씩 신문 사고란에 보면 10대 소년들의 강간, 인신매매, 매춘 등의 실로 개탄할 일이 지금 이 땅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동방의 예의지국이란 말도 옛날 얘기가 된 듯 도덕적 가치는 점점 땅으로 곤두박질 하고 있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흐르고 공간적 배경도 다르다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천 오백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계신다.

④거짓말하지 말라(不妄語)

사미율의에 「거짓말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허망한 말이니 옳은 것은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은 옳다고 하며 본 것을 못 보았다 못본 것을 보았다 하는 진실치 아니한 말이다. 둘째는 비단결 같은 말이니 꾸밈한 말을 늘어놓으며 애꿎은

5. 불교학 대사전 P658 : 수행승이 지켜야 할 계율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이 계를 범하면 승려 자격을 잃게 된다.

정열로 간절하게 하소연하여 음욕으로 인도하고 설은 동정을 돋구어 남의 마음을 방탕하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나쁜 말이니 추악한 욕설로 사람을 꾸짖는 것이요. 넷째는 두 가지로 하는 말이다. 만일 범부로써 '성인의 자리를 증득하였노라' 하거나 수다원과 사다함 등을 얻었노라 하는 것들은 큰 거짓 말이며 그 죄가 극히 중하다」라고 하셨다. 또한 능엄경에 「음욕과 살생 그리고 도둑질 의 세 가지 행실이 원만하게 되었더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삼마지⁶를 얻지 못한다」하셨으며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길 「사람이 세상을 앞에 입안에 도끼가 있어서 나쁜 말 한 마디로 몸을 찍는다」하셨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으랴. 또한 범망경에 「나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지 말라」즉 두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는 곧 이웃간 내지 지역간의 싸움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였으며 또한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말라」고 한 것은 나라간의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생명을 다치게 하는 것은 다 이 망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계 하신 것이다.

⑤술마시지 말라(不飲酒)

사미율의에 「술을 마신다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술이라」

즉 과일이나, 곡식으로 만드는 것으로 모두 먹지 말아야 한다. 술 한 번 먹는데 서른 여섯가지 허물이 생기나니 작은 죄가 아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은 죽어 똥물 지옥에 들어가며 날 때마다 바보가 되어 지혜종자가 없어지나니 경에 이르시길 「차라리 구시 씻물을 마실지언정 술은 마시지 말라」하셨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으랴.

선악소기경(善惡所起經)에는 「술을 먹을 때 서른 여섯가지의 허물이 생긴다」

라고 하셨으며 또한 범망경에는 「술 팔지 말라. 술을 팔면 오백생을 두고 손 없는 과보를 받는다」고 하셨으니 더욱 경계해야 될 것이다. 술 마시는 자 체보다 먹게 되면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되므로 더욱 먹지 말도록 한 것이다.

⑥꽃다발을 쓰거나, 향을 바르지 말라(不着香華蔓不香塗身)

사미율의에 「꽃다발이란 것은 인도 사람들이 꽃을 줄에 꿰어 다발을 만들어 머리에 쓰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단, 명주실, 명주솜, 금, 은이나 보석으로 패물이나 모자를 만들어 쓰고 차는 등의 일이며 또 향을 차기도하며 향수를 뿌리고 연지와 분을 바르기도 하는 것등인데 어찌 출가한 이가 그런 짓을 하랴」하셨다.

⑦노래하고, 춤추고, 풍류를 잡히지 말며 가서 구경도 말라(不歌舞倡伎不往觀聽)

사미율의에 「노래는 입으로 소리내는 것이요, 춤은 몸으로 추는 것이요, 풍류는 거문고나 통소, 대금, 피리 같은 것들이니 직접 하여서도 안되고 남이 하는 것을 가서 구경하여도 안된다」라고 하셨다. 요즘 포교

6. 불교학 대사전 P729 : 선정이라고 번역.

의 일환으로 찬불가를 부르기도 하고 연주하기도 하는 스님들이 계시다. 그러나 수행의 여가로서 하는 것과 업으로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법화경에는 「만약 사람으로 하여금 풍류를 잡되 북을 치고 퉁소를 불고 거문고, 공후 등을 연주하는 것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양하기 위한 것이지 사문이 스스로 즐기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다.

⑧ 높고 큰 평상에 앉거나, 사용하지 말라(不坐高廣大狀)

사미율의에 「부처님 법에 평상을 만들되 부처님 손으로 여덟 손가락을 넘지 못하게 하셨다. 이보다 지나치는 짓은 계를 범하는 것이다. 아름답게 칠하고, 단청하고, 꽃무늬를 새기거나 명주나 비단으로 만든 휘장이나, 이부자리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인도나, 태국등 남방불교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상 지면에서 떨어져 평상 위에서 공부하고 잠자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잘 정돈된 이부자리가 더욱 제멋이

아닐까. 그리고 방안을 호화스럽게 꾸미고 사는 것이 수행자의 본래 모습은 아닐 것이다.

⑨ 때아닌 때에 먹지 말라(不非時食)

사미율의에 「때아닌 때라는 것은 정오(正午)를 지내면 스님네 밥 먹는 때가 아니니라. 천인(天人)들은 아침에 먹고 부처님께서는 낮에 잡수시고, 짐승은 오후에 먹고, 귀신은 밤에 먹는다. 스님네는 부처님을 배우는 터이므로 정오가 지나면 먹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부처님 당시에 하루 한끼를 먹고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라홀라를 보고서 안타깝게 여기신 부처님께서 아침에 죽 먹는 것까지 인정하셨으며 대승불교에 와서는 저녁 식사를 약석(藥石)이라 하여 병의 치료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율장에서는 「만약 병이 있거든 먼저 음식을 끊고 단식으로 병을 나으라고」하셨다. 그러나 하루의 세 번 공양도 모자라서 간식을 찾아 먹고 있는 오늘날, 도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 아닐

까. 음식이 가장 으뜸이다. '모름지기 수행자는 음식 조절을 잘 해야 한다. 음식 조절을 할 줄만 알면 반 도인이다' 라는 어른스님 말씀이 새삼 교훈으로 와 닿는다.

⑩ 금, 은, 보물을 지니지 말라(不捉持生像 金銀寶物)

사미율의에 「금은 깎 때부터 본래 빛이 누르므로 본빛이라고 하고 은은 물들이고 가공하면 금과 같이 누렇게 되므로 물들이는 것이라 하며 보물에 일곱가지 보석과 기타 보석 종류를 말하는 것이니 이 모두를 갖게 되면 탐심을 돕고 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요즘 불자들이 호신불이라는 이름아래 금, 은으로 만든 반지와 목걸이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사행심과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할 수도 있으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위의 6, 7, 8, 9, 10번의 계목은 호화로운 생활만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경계한 것이다.

사미십계(沙彌十戒)는 우리 수행자를 더욱 수행자다운 모

습으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다.

계율(戒律)은 절대적인 강요가 아닌 부처님의 행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육조(六祖)스님 말씀에 「심지무비자성계(心地無非自性戒) : 양심에 잘못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자성계다.」라고 하셨다.

출가한 이는 부처님 법을 의지해서 수행해야 될 것이다. 또한 능엄경에서도 「말세의 중생은 계를 으뜸으로 삼고 계율을 마땅히 지켜야 하며 계행을 잘 지키는 사문을 스승으로 삼아라」라고 하셨으며 능엄경에는 「계(戒)로서 정(定)이 생기고 정(定)으로 말미암아 혜(慧)가 생기나니 계(戒)가 삼

학(三學)의 근본이 된다」라고 한 것이다.

4. 마치는 말

지금까지 사미십계의 각 항목마다 몇 개의 경전들을 소개해서 그 뜻이 좀 더 자세히 드러나도록 했다.

행자시절부터 늘 외우고 독송을 해 왔고 늘 가까이 대했던 말씀이리만큼 더욱 소중히, 철저히 지키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제대로 하기는 또 쉽지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세 살 먹은 아이가 아는 이치를 여든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다고 했던가.

얼마전 입적하신 방장스님께

서도 계율이 무너져가는 불교계를 걱정하시어 「오계의 노래」를 손수 지으시어 많은 불자들에게 널리 유포하셨다. 그리고 위에서도 소개했듯이 사미율의 뿐만 아니라 여러 경전들도 율에 대해 재차 강조하시고 계·정·혜 삼학을 닦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조스님의 말씀만 보더라도 계율의 의미를 재차 곱씹어서 완전한 자기 것으로 體化시켜야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1. 사미율의, 철우 (토방 1992)
2. 사미율의, 일타 (삼영출판사 1968)
3. 계율과 수행, 일타 (해인총림율원 1991)
4. 범망경보살계, 일타, (다라니 1992)
5. 초기 불교 교단과 계율, 김호성 (민족사 1991)
6. 능엄경, 김두재(민족사 1994)

편집 후기

✱ 「청암」이 도착했다. 표지에 실린 계곡의 시원함보다는 ‘또 늦었구나’하는 허탈함이 먼저였다. 반산림이 끝나기전에 내리러던 원력은 방장스님 입적하시던 날 없애버렸고, ‘그럼, 청암지보다는 빨리 내야겠지’ 하며 부지런을 떨어봤지만 결국은 지고(?) 말았다. 이제는 어찌나, 묵은 장맛이라도 나아 할텐데.... - 사교/도은

✱ 한운이 덕분에 이번 철 편집장 스님 별명이 하나 더 늘었다. ‘악덕 업주...’소임이 힘든 것은 편집장이 더 할텐데도 본래 둔한데다가 날씨가 더워 허리가 휠 정도였다. 어찌 되었건 이번에도 해청당이 나왔다. 모든 일이 그렇듯 하고 나면 아쉬움 있기 마련이지, 그래도 편집 후기 마침표가 시원섭섭한 이유는 무엇일까. - 사교/한운

㉮ 일은 적은데 바쁘다고 했던가. 소임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일을 하다보면 제시간에 끝내는 경우가 없으니 일이 많은건지 게으른건지 분간이 안된다. 개인적으로나 사중과 강당에 일이 많았던 한철이고 보니 해청당 보따리에도 이것저것 많이 담겨졌을 성싶은데, 과연 그런지 아쉬움도 남고. 다음철에는 일없이 바쁘지 말고, 일은 많으나 바쁘지 않은 여유로움으로 소임을 대할 수 있기를 바원해 본다. - 사집/연각

♪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일을 끝내면, 아쉬워하는 동시에 시원함을 느낀다. 10호 작업은 끝났지만 아쉬움 이면에 있는 시원함을 느끼기에는 감히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많은 힘이 되지 못해 윗반 스님들께 죄송하며, 치문반 햇병아리라고 작업보다는 강당생활에 주력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신 점도 깊이 감사드린다. - 치문/선문

● 대중생활은 이번철이 처음이라 여러모로 서툴렀습니다. 편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청당을 읽어 오셨던 당신도 해청당 10호는 처음일겁니다. 처음이라 모두들 익숙하지 않습니다. 바로 해청당의 성격은 투박하고 서툴다는데 있습니다. 모든 면에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제 자신을 이렇게 위로 해봅니다. - 치문/웅진

해청당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출판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지금, 해청당도 괜히 쓰레기만 보태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해청당에 실리는 송광사 스님들의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에서 잔잔한 감동을 느낀다는 분들이 뜻밖에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수행자답게 살고자 할뿐인데, 그런 모습에서 향그런 흠냄새를 맡고, 한 줄기 빛을 본다는 분들이 계시니, 부끄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더 열심히 수행하고 더 알차게 해청당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독자 여러분께 죄송스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청당을 만드는 저희들이 공부만 하는 젊은 학인이다보니, 사실 책 사보기도 벅찬 형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들 아셨는지 해청당을 보내달라는 분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니, 모른 척하고 안 보내드릴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지금까지 해청당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여러분이 정성껏 보내 주신 후원금 덕분이었지만, 앞으로도 힘닿는 대로 도와주셔서 해청당을 받아 보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보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청당은 삶에 지친 여러분의 가슴에 한 줄기 환한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아래 온라인으로 송금하시고, 편집실로 주소를 알려 주시면 해청당 평생독자로 모시겠습니다.

우체국 온라인 502864-0205429-17

예금주 서화교

주소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해청당 편집실

541-930, ☎ (0661) 755-5300, 5302

온라인 번호와 예금주가
변경되었습니다.

후원해 주신분들

10호 후원자 명단

석지암(나주 다보사), 현장, 종오, 원통, 덕조, 보경(이상 스님)구룡사, 대구관음사불일회, 종무소, 원종사 승복점(이상 단체), 김공흠, 황소현, 김무숙, 김갑숙, 이주성, 홍일선화, 조정숙, 안경희, 박지용, 조정현, 김선학, 정혜숙, 오선주, 장금식, 한세준, 홍석래, 채영숙, 임철훈, 박진석, 일심행, 강석창, 박반야심, 강병일, 조극락행, 송태형, 유정숙, 유원행심, 이몽불심, 김명순, 이지혜심, 김자비행, 정만법행, 손홍련화, 김수월광, 이형우, 박전, 박경빈, 박순희, 신동희, 조희경, 장시진, 박태호, 박대지행, 송정민, 공용표(일반 개인)

19호 편집상의 오류로 빠진 명단

강주, 학감, 일귀, 대원, 고경, 도원(도갑사), 영진, 현봉, 덕조(이상 스님)

적십자사, 종무소, 불일회보(이상 단체), 허앨리자벳, 이현숙, 혼한식, 김윤기, 허명옥, 도서출판 보림, 서명문, 서반야선, (이상 개인)

(편집시 착오로 빠졌던 분들께 지면을 통해 참회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540년 송광사강원

신입 및 편입 방부 안내

2540학년도 송광사강원 신입 및 편입 방부를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방부받는 반 치문반 〇〇 명
 사집반 편입 〇 명
 사교반 편입 〇 명

자 격 치문반 : 사미계 수지자
 사집반 : 치 문 수료자
 사교반 : 사 집 수료자

제 출 서 류 방부원서 2부
 은사스님 추천서 1부
 승적사본 1부
 승려증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수료증(편입생) 1부
 사진 (3 × 4) 3매
 방부금 20만원

준 비 물 : 대가사(비구) · 만의가사(사미) · 장삼 · 바루

전 형 방 법 : 서류, 면접

방 부 기 간 : 2540년 8월 29일 ~ 9월 30일 (양력)

문 의 처 : (0661)755-5300, 755-5302

송 광 사 강 원



도성당 紗窓가에 달이 둥둥 비쳐온다
달 아래 거울빛처럼 환하게 띄인 마음
이 한밤 부처님처럼 받드리워 보리라

* 인암스님의 송광사 순례시조집 중에서

道成堂 현재는 사중스님들의 처소로 쓰이고 있다.